

韓國語와 日本語에 관한 被動表現의 對照研究 : 한 국어를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

이상억
서울대인문대 국어국문학과 : 교수

<https://doi.org/10.15017/2198474>

出版情報 : 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 3/4, pp.19-64, 2004-03-15.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關係 :

韓國語와 日本語에 관한 被動表現의 對照研究*

—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 —

이상익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객원교수)

I. 총론

1. 본 논의에서는 한국어에서 태(voice)가 문법범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 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의미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원론적 문제부터 그 방향을 설정해 둔다. 우선 간단히 말해 한국어 문법에 태의 범주가 존재하며, 자-타동사 구별도 필요한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취하겠다.

그동안 한국어에 나타나 있는 태의 현상이라고 지적되어온 실체를 부인하고, 대신 상(aspect)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다른 견해는, 태나 상에 해당할 문법요소의 후보가 많아 보이는 언어를 연구할 때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태나 상이냐는 논란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의 소재를 이전시키는 효과밖에는 없는 분류학적(taxonomic) 발상인 것이다. 그러나 태란 문법범주를 한국어에서 인정하는 견해를 유지하는 데도 여러 검증할 문제점이 많아 아래 각론(II.1)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한편 자-타동사의 구별을 무시한다는 태도도, 실제로는 SVO, SOV 등으로 언어 유형을 분간하는 기준부터 목살하자는 발상이므로 그리스 문법 이래 기존 언어학의 기본개념들을 일시에 파괴하려는 무모한 태도일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의 존립을 전제하지 않고 많은 문장구조를 설명하기가 실제로 어렵고 따라서 언어 유형의 정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2. 한국어의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켜 피동형을 만드는 파생법은 일본어의 ‘-(ら)れ-(サ행은 -され-)’ 삽입과 형태상으로는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일부 동사에만 적용되는 파생법인데 비해, 후자는 전체 동사에 적용되는 굴절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다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 각론(II.2)에서 특히 한국어에 대해 상세히 연관 분야까지 아울러 논하겠다. 피동 구문에는 위와 같이 단형의 어휘적 피동(lexical passive)과 다음 3에서 언급할 문절 피동(clausal passive)이 있다. 문절 피동의 경우는 형태론의 영역을 지나 통사 과정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지만, 어휘적 피동은 비생산성과 형태론적 불규칙성 때문에 어휘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양언어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되도록 많이 동등히 대조시켜 보려는 목표로 추진하겠으나, 아무래도 한국어쪽의 기술이 많아질 것이며, 그에 대한 일본어의 대응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는 여기 제시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후일 일본어에 밝은 학자의 대비연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3. 한국어에서 부사형 어미 ‘-아/어’와 조동사 ‘-지-’에 의한 迂說的(periphrastic) 표현 ‘-아/어지-’를 삽입시켜 문절피동형을 만드는 방법은 일본어의 ‘-(ら)れ-(サ행은 -され-)’ 삽입과 형태상으로는 아주 다르지만, 둘 다 거의 전체동사에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포가 흡사하다. 이미 말했듯이 2에서 말한 어휘적 파생변화는 한

*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동경 간다대 간노 히로오미 교수와의 대화와 통신에서 생각이 정리된 점이 많았다. 규슈산업대의 하세가와 유키코, 야마구치대의 와다 마나부 교수는 일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였을 뿐 아니라 본문의 곳곳에 밝혔듯이 좋은 의견들도 제시하였다. 부록의 일어 대역부분은 미완성이지만 규슈대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과정 요네다 사치요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깎기 쉽다 vt かみやすい [피동 대신 쓰이는 표현]
 깎을 수 있다 vi かめる (가능)

6. 위 3에서 말한 ‘-아/어지다’ 이외에 ‘(격추/피격)당하다, (존경)받다, (도둑)맞다 [이상은 대격 ‘을’을 넣고도 쓰임], (발견)되다 [주격 ‘이’를 넣고도 쓰임]’도 피동형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어 피동형의 번역에서 위와 같은 의사(擬似) 피동 표현들이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현실이다. 이 표현의 특징은 <동작성 명사 + 하다> 를 피동화할 때 동원되는 것이다. ‘하다’류가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이 방식을 정식으로 피동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아/어지다’ 이외에 ‘-게(를) 되다’도 가능, 또한 ‘-게’ 대신에 ‘-게끔, -도록’도 가능하다. [참고로 ‘-아/어지다’ 피동형에 대응되는 사동형은 ‘-게(를) 하다’ 외에 ‘-게(를) 만들다’, ‘-게(를) 시키다’도 가능, 또한 ‘-게’ 대신에 ‘-게끔, -도록’도 가능하다.]

그리고 ‘(-게를) 되다’ 피동형과 ‘-이, 히, 리, 기-’ 단형 피동형이 일반 문장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이상억 (2000)에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단형과 장형 사동의 통계도 같이 인용해 둔다.

(4) (전략)

9. toy-Passivierung	2.70
10. an-Negation	1.97
11. Pluralisierung	1.93
12. Interrogation	1.71
13. Lange Passivierung	1.42
14. Unbestimmte Pronominalisierung	1.24
15. Kurze Passivierung	0.51
15. mot-Negation	0.51
17. Reflexivierung	0.44
18. Kurze Kausativierung	0.36
19. mal-Negation	0.11
20. Lange Kausativierung	0.07

(후략)

1 (3a)의 예를 애초에 아래와 같이 4줄로 대조하였다.

속다(피동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 vi	———	사기꾼에게 속다.
속여지다/속임을 당하다 vp	だまされる vp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하다.
———	だます vt	
속이다 vc>vt	だまされるようにする vc	사람을 속이다.

여기서 한국어 ‘속이다’가 일어 ‘だまされるようにする’에 해당된다고 하였지만 [이 번역은 요네다 제공] 이런 표현은 보통 일어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일어 화자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하세가와 교수의 의견에 따라 3줄로 본문에서와 같이 대응관계를 정리하였다.

또 한 예로 ‘나타나다’를 후보로 생각했으나, 하세가와 교수와 협의 결과, 위에서 본 바처럼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나타나다 vi	あらわれる vp	성과가 나타나다.
나타내다 vc>vt	あらわす vt	모습을 나타내다.
나타내지다(사동피동형) vcp	あらわされる vp	모습이 나타내지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피동에 있어서는 ‘(-게를) 되다’ 형태가 단형피동을 훨씬 앞서 있고 또 15, 18, 20 순위의 % 총합계보다 더 많은 2.7%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피동 구문에는 이와 같이 단형의 어휘적 피동(lexical passive)과 문절 피동(clausal passive)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이 각기 다른 기저 구조를 보장받기에 충분할 만큼 통사 의미론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7. 피동문의 연구에 있어서 동사가 받을 수 있는 빈자들의 수와 유무정성은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따라 동사류들을 분류할 수 있고 더 정밀한 문장구조의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일어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많이 관찰될 수 있는 분야도 이런 부문이어서, 최창욱 (1999) 의 논문 등에도 그 결과 보고가 보인다. 이제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 한일어에서 동작주 표시형태로 쓰일 수 있는 제 형식들을 피동, 사동 구문별로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한국어 검토에 썼던 아래 예문을 일어로 ‘번역’해서 테스트해 보겠지만 이들 문장은 성립 경계선상(marginal)에 있는 것들이 많다.

(5)

A. 한국어

- a. 펠리칸은 새끼에게 제 내장까지를 먹인다. (사동)
- b. 펠리칸은 새끼에게 제 내장까지를 먹힌다. (피동) [원래, 내장까지가가 정상]
- c. 펠리칸은 새끼에게 제 내장까지를 뜯긴다. (사, 피동)
- cf. 펠리칸은 새끼에 의해 제 내장까지를 뜯긴다.
 (동작주 처격) 내가 칼에 손을 베인다. 펠리칸은 창칼에 제 내장까지를 뜯긴다.
 (동작주 조격) 내가 칼로 손을 베인다.
 (동작주 여격) 내가 범에게 손이/을 물린다.
 (동작주 탈격) 상이 회장에게서 우승자에게 주어진다.
 (<회장이 상을 우승자에게 준다.)

B. 일본어

- a. 車にひかれる、風にとばされる。
- b. わたしはナイフでゆびをきられた。
- c. 彼から嫌なことを言われた。
- d. 交通事故によって傷を負わされる。

이 때 회화에서는 이런 예들 중 일부가 나올 리 없고, 주로 문어에서 문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여부(○X)와 그 중간(삼각형)인가를 판단해 보면 되겠다. 대개 성립 경계선상에 있는 예들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주의를 해서 살릴 것은 살려야 대조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기 일본어 대비는 필자와 간다대 간노, 규슈산업대 하세가와, 야마구치대 와다 교수와의 사이에 면담과 통신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많다. 확고한 주장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논문에 쓰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태도로 즉답을 한 내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다.

(6)

문장의 성격(능, 피, 사동문의 구별)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
선행체언의 성격(유정물과 무정물의 구별)		유	무	유	무	유
① 동작주 처격 -에 = 동작주 조격 -(으)로 =	<한국어>	X	○	X	○	X
	<일본어>	○	○	○	○	○
② 동작주 여격 -에게, 께, 한테, 더러, 보고 = 동작주 탈격 -에게서, 한테서, 로부터 =	<한국어>	○	X	○	X	○
	<일본어>	○	X	○	X	○
③ 동작주 - 접미사적 숙어구 -에 의하여(해서), -로 하여(해서) =	<한국어>	○	○	○	○	○
	<일본어>	○	○	○	○	○
④ 동작주 - 접미사적 숙어구 -에(로) 인하여(해서), -로 말미암아 =	<한국어>	○	○	○	○	X
	<일본어>	○	○	○	○	X
⑤ 동작주 - 접미사적 숙어구 -로 하여금, -을 시켜 =	<한국어>	X	X	X	X	○
	<일본어>	X	X	X	X	○

위 표에서 몇 가지 흥미 있는 점은, 한국어의 경우에 ①류들은 무정물 동작주 표시에, ②류들은 유정물 동작주 표시에 써서 결국 ①과 ②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며, 일본어의 경우는 처격 “에”와 여격 “에게”가 둘다 니로 통용되기 때문에 ①과 ②는 한 범주로 어차피 통합된다. 그리고 니와 데는 한일어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을 와다 교수와의 대담 중에 확인하게 되었다.

(7) 처격

- a. 내가 칼에 손가락이/을 잘랐다. vp
- b. *わたしはナイフにゆびをきられた. vp [일어에서 성립되지 않아 한국어와 다름.]
- c. *내가 칼에 손가락을 잘랐다. vt
- d. *わたしはナイフにゆびをきった. Vt

(8) 조격

- a. 내가 칼로 손가락이/을 잘랐다. vp
- b. わたしはナイフでゆびをきられた. vp [한국어와 달리 ゆび는 성립 안 된다 함.]
- c. 내가 칼로 손가락을 잘랐다. vt
- d. わたしはナイフでゆびをきった. vt

덧붙여, から가 니와 거의 같게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와다 교수의 예: せんせいから/しかられた, せんせいから/にほめられた, あいつから/になぐられた

한국어에서 ‘한테’는 구어체에만 쓰이는 반면, 위의 ③류 이하는 문어체의 느낌이 있어 회화 중에는 안 나타난다. 일본어에서도 니によって, 니よ리는 다분히 문어적 스타일이고 을して도 문어체 냄새가 나서 일상회화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③류는 양용(兩用) 즉 어느 경우나 다 쓰이는 데 비해, ④류는 능동, 피동사문 즉 비사동사문에만 쓰인다. によって/によ리는 능동문 피동문 모두, 무정 동작주에 쓰일 수 있다. 즉 交通事故によって傷を負わされる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세가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④의 ‘-로 인하여’, ‘-로 말미암아’에 대응되는 일본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들은 모두 ‘によって/により’로 번역된다고 한다. 일본어에서는 ①의 ‘-에’와 ②의 ‘-에게’의 구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③, ④의 구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쓰이는 한자가 다르기는 하다. 즉 ③은 依자를 쓰고 ④는 因자를 쓴다. 따라서 구별이 없다가보다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⑤류는 사동사문에만 쓰이는 상보배타적 관계를 보인다. 이 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론은 II.5.절에서 펼치겠다.

8. 본 논문의 부록으로 붙이는 <한일 피동사 대조 목록>은 빠짐없이 모든 항목을 포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나와있는 사전 중 가장 충실한 국립한국어연구원의 ‘표준한국어대사전’에서 피동사로 표시된 전 항목을 전산 검색하여 작성한 것이다.

현재 자세한 한국어사전에서 자료를 모조리 훑어 와도 실제로 그 결과가 모든 피동형을 다 망라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대 사전은 전의 사전을 그대로 베껴온 협의가 짊어져 앞선 사전 편찬에서 한번도 포착되지 않은 항목은 우연히 그냥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전편찬자나 목록작성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용례를 한국어 화자에게 직관적으로 검토시켜 보충해야 할 남은 과제다.

이러한 불완전성의 또 한 원인은 특히 한국어의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삽입첨가시켜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의 가능성이 상당히 우연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화자에 따라 각 피동형의 수용가능성이 다른 데도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일 대역 표현의 확정 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다. 개인의 직관적 번역은 그 사람의 양 언어에 대한 이해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전들의 번역조차 저자 개인에 따라 틀린 것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9. 이상의 형태론적 관찰에서 보이는 차이점 이외에도, 양한국어는 규범문법상 의미나 용법의 구별에 있어서도 적잖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피동이라는 한 기능만 인정하는데 비해 일본어는 피동, 가능, 자발, 존경의 4 용법을 설정하고 있다. 이 차이점과 다른 세부 문법 문제에 대해서는 II.6.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참고로 최현배 (1965) 우리말본, p.411, p.388ff. 에는 피동의 ‘하위 범주’로 이해(利害), 가능, 자연의 3 부류를 설정하고는 있다. 여기의 ‘가능’이란 범주의 설정은 일어 문법에서의 ‘가능’과 명칭상 같지만 피동의 하위 범주로 복속시키고 있는 점에서 격식상 지위가 다르다.

II. 1. 한국어의 어간형성 접미사 ‘-히-’등을 첨가한 피동형이 ‘태’를 표현하는가?

한국어에서 문법범주로서 태(voice)가 인정되어 그 전제하에 피동형과 사동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인가?

(1) 굴절의 한 범주로서 태가 인정된다면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켜 피동형을 굴절의 문법부에서 다룰 수 있다. (2) 반면 태를 인정치 않는다면,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킨 피동형을 파생의 어휘부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어찌보면 원래 ‘태’를 ‘문법부’의 범주로만 원론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실제 한국어의 언어현실은 화자들이 파생으로 어휘군을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피동태라는 문법범주로도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피동의 ‘굴절’ 접사라 할 정도로 모든 어간에 넓게 붙이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괴이다, 메이다, 띠이다, 쥐이다, 지이다, 똥기다, 글히다, 기피다, 다히다’ 등의 피동형이 있다가 없어진 예도 있듯이 (물론 이 경우 -이- 라는 표기가 사라진 데도 이유가 있다) 과거에 더 넓은 굴절의 범주로 태가 표현되어 오다가 차차 접미사 ‘-이, 히, 리, 기-’의 분포가 소수의 어간에만 첨가(파생)되는 것으로 정지 내지는 축소, 즉 비생산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앞으로 중세어에서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던 어간의 수가 현대어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면밀한 추적 조사로 계량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큰 경향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아래에 보이는 이상억(1999: 195)의 중세어 표에서 이 문제를 우선 대략 살펴보자.

(9)

어간 형성 접미사	사동		피동		
	선행어기말음	실례(다수, 생산적)	선행어기말음	실례(소수, 비생산적)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1 이 1 계	-히-	ㅂ, ㄷ, (일부) ㅅ, (일부) ㄱ, ㄴ, ㄹ <근대어에선 변칙 ㅂ, ㄷ, 일부 ㄱ, ㄹ이 합세>	너피다, 구티다, 마치다, 마키다, 안치다, 글키다, (더러피다), 니키다, 노키다	ㅂ, ㄷ, ㅅ, ㄱ, ㄴ, ㄹ (유기화가 가능한 것)	자피다, 다티다, 머키다, 옌치다, 얼키다
	-기-	ㅁ, ㄹ, ㅅ	숨기다, 옹기다, 밧기다	ㅁ, ㄹ	똥기다
	-이-	(변칙) ㅂ, ㄷ, ㄹ (일부) ㄱ, ㄹ, ㅅ, ㄷ, ㅅ, ㅆ (氣音) ㅅ, ㅌ, ㅍ, ㅎ (변칙) ㄹ 모음(특히 '이'를 제외한 모음어 간과는 축약되어 음 절부음 'ㅣ'화)	들이다, 살이다, 머기다, 저지다, 글히다, 갖기다, 맛디다 조치다, 브티다, 기피다, 저히다, 올이다, 얼이다 마초이다, 뵈다	(변칙) ㅂ, ㄷ, ㄹ, ㅅ <근대어 이후 ㄹ 밑 에는 '리'가 보편화>, ㅅ (기음) ㅅ, ㅎ (변칙) ㄹ, 모음(특히 '이'를 제 외한 모음어간과는 축약되어 음절부음 'ㅣ'화)	들이다, 얼이다, 열리다(<열이다), 봣기다 조치다, 다히다, 늘이다, 가도이다, 뵈다
	-이-	'ㅣ'모음<15세기어, 장음 표시>	지이다	'ㅣ'모음	괴이다, 메이다, 띠이다, 쥐이다, 지이다

위의 표에 예시한 고어 중에 현대어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앞서 지적한 대로 약간의 수만 없어졌음이 확인된다. 요컨대, 축소된 추세인 것은 여하튼 확실하다. 그러나 아래의 또 다른 표에서는 특히 -기- 계열이 현대국어에서 추가된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접미사를 쓰는 어휘중 -ㄷ, ㄴ, ㄴ, ㅇ으로 끝난 용례가 마침 고어 자료에서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다가, 다양한 문장에서 조사한 현대국어에서는 마치 새로 증가된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10)

선행어기말음시대별	후기중세국어(15~16세기)	근대국어(16세기 말 이후)	현대국어(표1 참조)
모음(‘ ’모음제외)			
← ‘ ’ 모음	(어) 이 [오/우]	이 오/우	이 우
k	기 이, 히 리 [이], 히 시(π) 이	이, [히] 이, 히 이	이, [히] (후) -[히] [이]
t	치 -[히] 오/우, 호/후 (△)스 이- - 오/우 스 이, 히 오/우, 호/후 시 -[히] 치 이 오/우 (ㄷ)ㅈ 이 - - 오/우 ㅈ - ㅎ [이]	-[히] 오/우, 호/후 - - - 오/우, 고/구 이, 히 오/우, 호/후 -히 이 오/우 이 - - - [이]	-[히], 기, 우, 후, 구 - - [기] -우 -구 -[히](기) [후] -[히] - - [기] 우 이-(기) (후) [이] [이]
p	(ㅂ)ㅃ① -히 ㅃ 이- ㅃ [이]	-히 -히 [이]	-[히] -[히] [이]
l	리② [이]- - (리) [오/우] 으/으	[이]- - (리) 오/우	(이)-(기) [리] (우)-(구)
n	ㄴ [이]- - - ㄴ - - -	[이]- - - - - -	이 - - [리] - - [기]
m	ㅁ - - [기] 으/으 ㅁ - - [기]	- - [기] 고/구 - - [기]	- - [기] - - [기]
ŋ	ㅇ - - -	- - -	- - 기

이러한 축소의 방향으로 보는 근거 중 또 하나는 현대국어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단형 피동을 쓰는 쪽보다 어휘 피동으로 쓰려는 경향이 관측된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고대 이전의 어느 시기에는 태라는 문법범주가 굴절 기제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켜 표현하였었다가 점차 비생산적이 되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굴절 범주도 뇌리에 남아 있는 현실 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키는 분포만은 그냥 파생으로 처리해야 하게끔 축소된 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아직 굴절의 성격을 지닌 채 파생의 분포를 보인다는 말이다. 즉 한 현상이 두 범주에 걸친듯이 현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는 과도적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일본어의 ‘-(ら)れ-(サ행은 -され-)’ 삽입은 처음부터 굴절 범주로 시작되어 계속 현재까지, 형태상으로는 한국어에 비해 아주 단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II. 2. 한국어의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한 피동형

II. 2.1. 세 가지의 ‘-기’

한국어에서 동사의 접사 위치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동명사형의 형성에 있어서 첫 어간의 위치와 마지막 명사화소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의 요소들은 선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11) I II III IV V VI
/벗//기₁/ /시//었/ /졌//기₂/

가령 (11)에서 I‘벗-’과 VI‘-기’는 고정되어 있지만, ‘-기-’, ‘-시-’, ‘-었-’, ‘-졌-’ 등은 선택적이다.

피동/사동의 ‘-기₁-’는 동사어간의 일부분으로 파생형태론에 속하며, ‘-시-’, ‘-었-’, ‘-졌-’은 굴절형태론에 속한

다. 그러나 ‘-기₂’의 위상은 매우 흥미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파생접사인가 굴절접사인가? 이 문제는 본 논문 앞머리에서 다루어야 할 선행 주제이기 때문에 좀 장황해지더라도 ‘-기₂’의 부분까지 파생/굴절 여부의 판가름 예를 다루겠다. 그리고 피동/사동의 ‘-기₁’와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11)에서 ‘벗-기₁’의 ‘-기₁’는 파생접사이나, ‘벗-기-시-기’의 예서는 ‘-시-’가 두 접미사 ‘-기₁’와 ‘-기₂’ 사이에 들어 있다. 이 사실로 보면 (11)은 파생 속에 굴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가 잠재적인 파생접사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복합 동사의 마지막 위치에 나타난다고 해서 파생과 굴절이 서로 뒤섞일 수 있다는 증거는 못된다. 굴절접사는 파생접사의 바깥에 와서 단어를 마감하는 경향이 있다(Bloomfield 1933:222).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굴절접사 뒤에 파생접사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한국어에서 파생명사 속에 굴절접사가 있는 것은 없다. 예컨대 ‘보-기’는 파생명사지만 ‘보-시-기’, ‘보-았-기’ 등은 비록 격조사가 붙기는 하지만 파생명사가 아니다. ‘-기₂’에 대하여 두 가지의 ‘-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굴절접사 ‘-기’는 동사 활용의 일부로서 동명사 구문에 쓰인다. 파생접사 ‘-기’와 동명사 ‘-기’의 관계는 제로 파생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

- (12) a. 내 [돋보-기]N-가 어디 있니?
- b. [[PRO 황금을 보]S-기]NP-를 둘 같이 하라.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파생과 굴절이 모두 사전 속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통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12b)에서 ‘황금을 보기’는 (12a)의 ‘돋보기’와는 달리 명사구이다. 문제의 명사구에서 ‘-기’는 동사 ‘보-’ 다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사구에 의해 지배되는 S 교점의 자매 교점인 것이다.

모든 굴절접사는 파생접사 다음에 온다고 가정하면 파생접사는 비활용 어근이나 어간 뒤에만 붙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 주장은 직관적으로 옳은 것 같다. 이것은 또한 ‘보-이-기’와 ‘보-시-기’에서 앞의 것만 명사로 가능한 것임을 예언한다.

‘보기’(例)가 보여주듯 ‘-기’로 된 파생명사의 의미가 항상 合成的(compositional)인 것만은 아니다. 그밖에 이 명사는 합성어(예. 돋보기, 연날리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기’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13) -기(파생명사) | -기(동명사) |
| a. 상태 동사에는 붙지 않는다 | 어떤 동사어간에건 붙을 수 있다. |
| b. 굴절이 선행될 수 없다 | 굴절에 후행할 수 있다 |
| c. 통사론에 무관하다 | 통사론에 관련된다 |
| d. 의미가 항상 합성적이지 않다 | 의미적 합성이 지켜진다 |

다음에는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의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한국어에는 피동/사동의 ‘-기’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선행하는 동사어간이 비음으로 끝날 때만 적용하는 경음화(fortition) 규칙으로 해서 명사형 ‘-기’와 쉽게 구별된다.

- | | |
|---------------|--------------------|
| (14) 동사어간 | 활용어미 |
| 어근 피동 -기 | 명사형 -기 부정형 -지 |

감-	[감기]	[감끼]	[감찌]
벗-	[벗기]	[벗끼]	[벗찌]

명사형 ‘-기’와 부정형 ‘-지’는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피동의 ‘-기’와 구별이 된다. (참고: 병명으로 ‘감기’라는 명사를 발음할 때도 경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파생명사 ‘줄감기’의 ‘-기’는 명사형 ‘감기’의 ‘-기’와 동일하게 [끼]로 발음된다. 또한 어떤 명사형은 피동접미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예. ‘감-기-기’, ‘감감’) 만일 ‘감끼기’의 첫 번째 ‘-기’가 명사형 ‘-기’라면 [*감끼기]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이런 발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동접미사 ‘-기’는 어간의 일부로 간주되는데, 이 접미사에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규칙은 동명사형과 파생명사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둘을 구별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피동/사동의 ‘-기’는 음라우트를 일으키기도 한다. 만약 파생접사 ‘-기’에만 음라우트가 적용된다면 두 가지 ‘-기’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맞보기’는 ‘맞뵈기’가 가능한데, 동명사 또는 파생명사로서의 ‘보기’는 ‘뵈기’가 불가능하다. 음라우트로 인한 변이형은 ‘맞보기’ 뿐만 아니라 ‘돋보기’, ‘본보기’ 등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바둑에서 쓰는 의미의 ‘맞보기’에서는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산발적인 음라우트마저도 동명사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완진(1971:132)에서도 (15)의 음라우트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 (15) a. 그 꽃/은 [뵈기](-가) 싫/다.
- b. *그 꽃/을 [뵈기](-가) 싫/다.
- c. 그 영화/는/를 [보기](-가) 싫/다.

신기하게도 ‘-기’ 뒤에 ‘싫-’이나 ‘좋-’과 같은 상태동사가 올 때는 음라우트가 드물지 않다(예. 먹기~멕기 싫다, 듣기~뵈기 좋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15b)의 ‘뵈기’가 동명사형이라면 ‘보-’가 타동사인 까닭에 (15c)에서처럼 당연히 그 앞에 목적격 표시 ‘-을’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뵈기’를 명사라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15b)가 비문이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보게 된다.

II. 2.2. 피동/사동접미사

앞서 피동구문에서 보였듯이, 사동 구문에도 어휘적 사동(lexical causative)과 문절 사동(clausal causative)이 있다(Chomsky 1970 : 218). Shibatani(1973, 1976)는 이 두 유형이 각기 다른 기저 구조를 보장받기에 충분할 만큼 통사 의미론상의 차이가 있음을 간파한 바 있다. ‘입히다’와 ‘입게 하다’와 같은 쌍이 그 좋은 예이다.

- (16) a. 어머니는 메리에게 옷을 입히었다.
- b. 어머니는 메리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한국어에서 어휘형은 사동사(=동사어근+사역접미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문절형은 補文素(complementizer) ‘-게’ 다음에 ‘하-’를 쓰는 것을 말한다. (16)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문절 사동은 피사동주(causee)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반하여 어휘 사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

지 않다(Shibatani 1973, cf. Yang 1974, 이기동 1975a). 문절 사동의 경우는 형태론의 영역을 지나 통사 과정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지만 어휘 사동은 상태적 비생산성과 형태론적 불규칙성 때문에 어휘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Kim 1984: 101).

한편 피동접미사가 형태면에서 사동접미사와 우연히 겹치고 있는 점은 한국어가 갖는 한 특징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동일 어근에서 나온 피동형과 사동형이 같아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된다(예. 보-이-, 활-이-). ‘떡’에서 파생된 ‘떡-히-’와 ‘떡-이-’는 예외적이다. 다음의 예문은 이상억(1972: 53)에서 인용한 것이다.

- (17) a. 펠리칸은 새끼에게 제 내장까지를 먹인다. (사동)
- b. 펠리칸은 새끼에게 제 내장까지를 먹힌다. (피동)
- c. 펠리칸은 새끼에게 제 내장까지를 뜯긴다. (사, 피동)

c와 같이 피동과 사동이 발음이 같으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선행하는 격조사에 의하여 또는 문맥으로부터 사동/피동 의미는 쉽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에서는 먹인다 (사동 たべさす、たべさせる) 먹힌다 (피동 たべられる) 뜯긴다 (사동 きりとらせる, 피동 きりとられる)가 각각 형태를 달리 하여 (17) c와 같은 ‘구조적 애매성’의 현상은 결코 일으키지 않는다.

‘구조적 애매성’에 대한 도식으로서의 설명은 아래 II.2.4.를 참고하면 좋겠다.

II. 2.3. 피동과 관련한 사동접미사: ‘-이-’형과 ‘-우-’형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동과 사동접사는 여러 가지 이형태를 공통으로 가지는데 ‘-이-’, ‘-히-’, ‘-리-’, ‘-기-’가 그것이다. 이기문(1972: 94)에서는 이것의 古形(proto-form)으로 * γi 의 재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고품이 나중에 / r , Δ /과 모음 사이에서 hi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네 가지 표현형을 동일한 기저형 /hi/로부터 도출하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인 것 같다.

나머지 접사 ‘-우-’, ‘-후-’, ‘-구-’ 등은 Martin(1954: 58)이 幹母音(thematic vowel) u를 갖는 접미사라고 부른 것으로서 모두 사동에서만 쓰인다. 이것은 사동 접사의 기원이 두 갈래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 (18) 피동 -i/-hi/-ki-
- 사동 -u/-hi/-ku-

‘-우-’형 사동접미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이-’형 사동접미사를 먼저 살펴보자. Kim(1984)는 ‘-리-’를 제외한 (18)의 ‘-이-’, ‘-히-’, ‘-기-’는 순수하게 음운적인 설명을 가할 마땅한 수단이 결여된 까닭에 이들 접미사는 어휘부에서 다음과 같은 모양의 형태어휘 규칙에 의해 연관이 맺어지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 (19) $X+i \sim X+hi \sim X+ki$

이것은 ‘-이-’, ‘-히-’, ‘-기-’가 어휘항목으로 어휘부에 기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형태는 소위 이형태 선택 규칙에 따라 그 쓰임이 정해진다. 그 규칙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비록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일

반적으로 ‘-기-’는 비음(ㄴ, ㄹ)이나 ㅅ 뒤에서 선택되고, ‘-히-’는 ㅂ, ㄷ, ㄱ, ㅈ 뒤에서, 그리고 ‘-이-’는 그 밖의 경우에 선택된다.

아래 표는 (19)의 각 형태별로 몇가지 중요한 예를 보인 것이다. (0은 ‘피동/사동으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은 위의 이형태 규칙의 예외임을 가리킴.)

	사동	피동		사동	피동
(20) a. -기-: 안-	0	0	입-	0	
끓-	0	0	잡-	0	
감-	0	0	굳-	0	
벗-	0	0	식-	0	
빚-	0	0	단-		0
남-	0		극-		0
끓-	0		뺨-		0
웃-	0		c. -이-: 보-	0	0
끓-		0	나-	0	0
앗-		0	높-	0	
*뜯-	0	0	붙-	0	
*말-	0		놓-		0
*민-		0	썩-		0
*찢-		0	파-		0
b. -히-: 업-	0	0	꼬-		0
읽-	0	0	*죽-	0	
잡-	0	0	*눅-	0	
없-	0	0	*먹-	0	

위에서 함축하고 있듯이 ‘-리-’는 ‘-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아래와 같은 예외들이 있기는 하지만, ㄹ-접자음화는 한국어에 어차피 필요한 규칙인 것이다.

- (21) 줄-이- [cʰuri] < cul-i- 절-이- [cöri] < cöl-i-
 줄-이- [cori] < col-i- 들-이- [turi] < tül-i-
 끓-이- [k'uri] < k'ülh-i

접사 ‘-리-’는 流音(liquid)인 ㄹ(때로는 ㄷ-변칙 동사의 ㄷ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 뒤에만 나타난다.

- (22) a. 걸리- [köl̥li] < köl-i- c. 들리- [tüll̥li] < tüt-i-
 빨리- [p'alli] < p'al-i- 실리- [silli] < sit-i-
 쓸리- [s'üll̥li] < s'ül-i- 걸리- [köll̥li] < köt-i-
 알리- [alli] < al-i- 불리- [pulli] < put-i-

- | | |
|---------------------------|--------------------------|
| 돌리- [tolli] < tol-i- | d. 놀리- [nulli] < nuli-i- |
| 팔리- [phalli] < phal-i- | 말리- [malli] < mali-i- |
| b. 풀리- [t'ulli] < t'ulh-i | 홀리- [hilli] < hili-i- |
| 콜리- [kolli] < kolh-i- | 잘리- [calli] < cali-i- |

(21)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20)의 모든 형태들은 ㄹ-접자음화에 앞서 ㅎ-탈락 규칙, ㄷ-공명음화 규칙과 ㅡ-탈락 규칙을 적용시킴으로써 잘 설명된다. 앞에서 우리는 ‘먹이-’와 ‘먹히-’가 구별된다고 했다. 다른 예로는 ‘박-이-/박히-’, ‘덥-히-/데-(<덥-이-)’ 등이 있다. 그러나 ‘삭-’, ‘눅-’, ‘씩-’ 따위의 어근은 ‘-이-’, ‘-히-’ 어느 것이든 의미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

한층 당혹스러운 것은 ‘-우-’형 사동접미사들이다.

- (23) a. X+hu: 낮-후-, 갓-후-, 늦-후-, 맛-후-.
 b. X+ku: 솟-구-, 돋-구-, 달-구-, 암-구-, 일-구-

(23)에서 볼 수 있듯이 ‘-후-’는 ㅈ 다음에 나타나고 ‘-구-’는 ㄷ 제외한 설정음(coronal)이나 비음 다음에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맛-후-’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처럼 軟音(lenis)으로 끝난 어간에 붙는 것은 일반적으로 ‘-히-’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맛-히-’란 형태를 갖고 있다. ‘맛-후-’의 역사적 근원을 캐기 위해서는 ‘X-우-’형 사동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 (24) X+u : 비-, 피-, 지-, 쩌-, 끼-
 메-
 깨-, 새-

접미사 ‘-우-’, ‘-후-’, ‘-구-’는 사동법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24)에서 ‘-우-’는 전설모음 다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약 “우-”가 원래 ‘-이-’였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틀림없이 異化(dissimilation)의 경우인 것으로 단정하기 쉽다.

- (25) $i \geq u / [V, \text{-back}] + \underline{\quad}$ causative

규칙에서 가리키듯이 피동형에는 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예를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 | | | |
|------|------|------|
| (26) | 사동 | 피동 |
| 메-: | 메-우- | 메-이- |
| 끼-: | 끼-우- | 끼-이- |
| 깨-: | 깨-우- | 깨-이- |

사동의 ‘-우-’가 이화의 결과가 아님은 차차 밝혀질 것이다. 이제 (24)의 ‘X+u’형과 관련한 자료를 보자.

- (27) 키우- [khiu] < khī-iu- 띄우- [t'iu] < t'ī-iu-
 썩우- [s'iu] < s'ī-iu- 티우- [thiu] < thī-iu-
 세우- [seu] < sī-iu- 테우- [teu] < tīp-iu-
 태우- [thæu] < tha-iu- 재우- [cæu] < ca-iu-
 채우- [chæu] < cha-iu-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의-’는 어두에서는 ‘-으-’로, 자음 뒤에서는 ‘-이-’로 발음된다. 이러한 모음 축약이 일어난 다음에 축약된 형태에 두 번째 모음인 ‘-우-’가 첨가된 것이다. 피동형에서 모음 축약은 수의적이다. 다음의 예들을 비교해 보면 두 형태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8) 사동: 띄우- [t'iu]~[t'i:] < t'ī-iu- 썩우- [s'iu]~[s'i:] < s'ī-iu-
 티우- [thiu]~[thi:] < t'ī-iu- 태우- [thæu]~[thæ:] < tha-iu-
 채우- [chæu]~[chæ:] < cha-iu-
 피동: 뜨이- [t'ii]~[t'ii] < t'ī-i- 쓰이- [s'ii]~[s'ii] < s'ī-i-
 트이- [thii]~[thii] < thī-i- 채이- [chæi]~[chæ] < cha-i-

‘-우-’의 존재는 (29b)에서처럼 ‘-어-’가 뒤따를 때에는 축약된 형태에서조차도 종종 실감할 수가 있다.

- (29) a. 길이-를 재-어라 [재어라]~[재라]
 b. 아기-를 재우-어라 [재워라]~[재라] *[재어라]

(2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이 선행할 때에는 ‘-어-’는 종종 탈락된다. 이것은 ‘-우-’가 없는 사동, 즉 ‘X-i-’형이 때로는 重義性(ambiguity)을 띠 수 있는데 반하여 ‘X-iu-’형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이우-’의 첫모음 ‘-이-’는 (20c)에서 본 것과 똑같은 사동접미사임을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우-’ 또한 그 나름대로 사동 형태소가 되므로 ‘-이우-’는 두 개의 사동형태소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중사동(causative doubling)이 사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X-iu-’형은 왜 의미해석상 중의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지 이해가 된다.

좀 상황하였지만 이상의 토론을 요약하자면, 피동/사동의 ‘-기₁-’는 현재 공식적으로 보아서는 동사어간의 일부분으로 파생형태론에 속하지만 그 분포의 흔적으로 보아 과거에는 굴절형태론에 속했던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₂’의 양상은 파생접사로서의 예와 동명사를 만드는 굴절접사로서의 예가 “-기(파생명사) 대 -기(동명사)”로 ‘-기₂’라는 동일한 형태 속에 중복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II. 2.4. 사동, 피동구문의 기본구조 및 생성 과정 - 생성구조의 공식화, 구조상 애매성의 발생관계 -
 이제까지는 주로 형태론적인 면에서 사동, 피동구문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요소들을 어떠한 구조로 묶어서 문장을 이루는가를 연역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우선 사동문과 피동문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음 (30) 과 같은 공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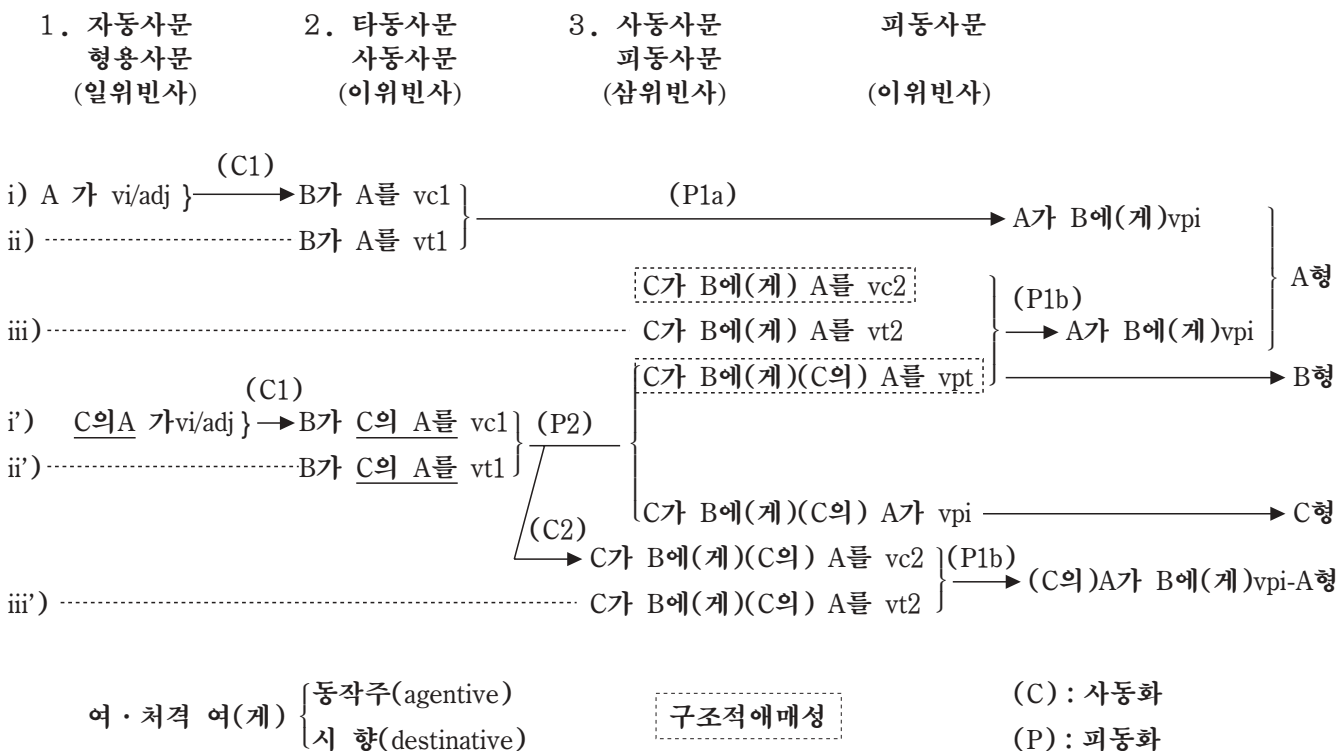
이 공식표는 사동, 피동과 무관한 체언문만 빼놓고는 사동문, 피동문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동사문, 타동사문, 형용사문의 상호 연관관계를 일람(一覽)할 수 있게 작성된 것이다. 이 공식표에 의거하면 사동?피동구문의 기본구조는 거의 다 밝혀지게 짜여진 것이다. 다만 자동사에서 피동사로 직접 전화(轉化)되는 관계는 일반성이 얕은 것이므로 굳이 표시하지 않았다.

표 상단부의 세 줄로 씌어진 구분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으나, 다만 일위빈사니 하는 것들은 일항술어라고도 번역되는 one-place predicate 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각 ‘항’은 그 밑 i)부터 iii’)까지의 예문에서 A, B, C 로 그 위치가 표시되었다. (C), (P)는 각각 사동화(causativization), 피동화(passivization)를 가리키며 그 세분된 경우에 따라 1a, 1b 및 2로 구분해 본 것이다.

우선 표 (30) 에서 술부에는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에 의한 사동?피동 표현형식만 대입해 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3의 삼위빈사들 중 점선 둘러리틀 한 것들은 외형으로 보아 구조상의 애매성(structural ambiguity)을 띠는 것들이다. 그밖에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다 붙이자면 상당히 장황하여지는데, 여기서는 ‘구조적 애매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일이 주목적이므로, 전체 표에 대한 설명은 이상억 (1970, 1999) 로 미루어 둔다.

(30) ‘구조적 애매성’에 대한 도식으로서의 설명



II. 2.5. 빈사(동사)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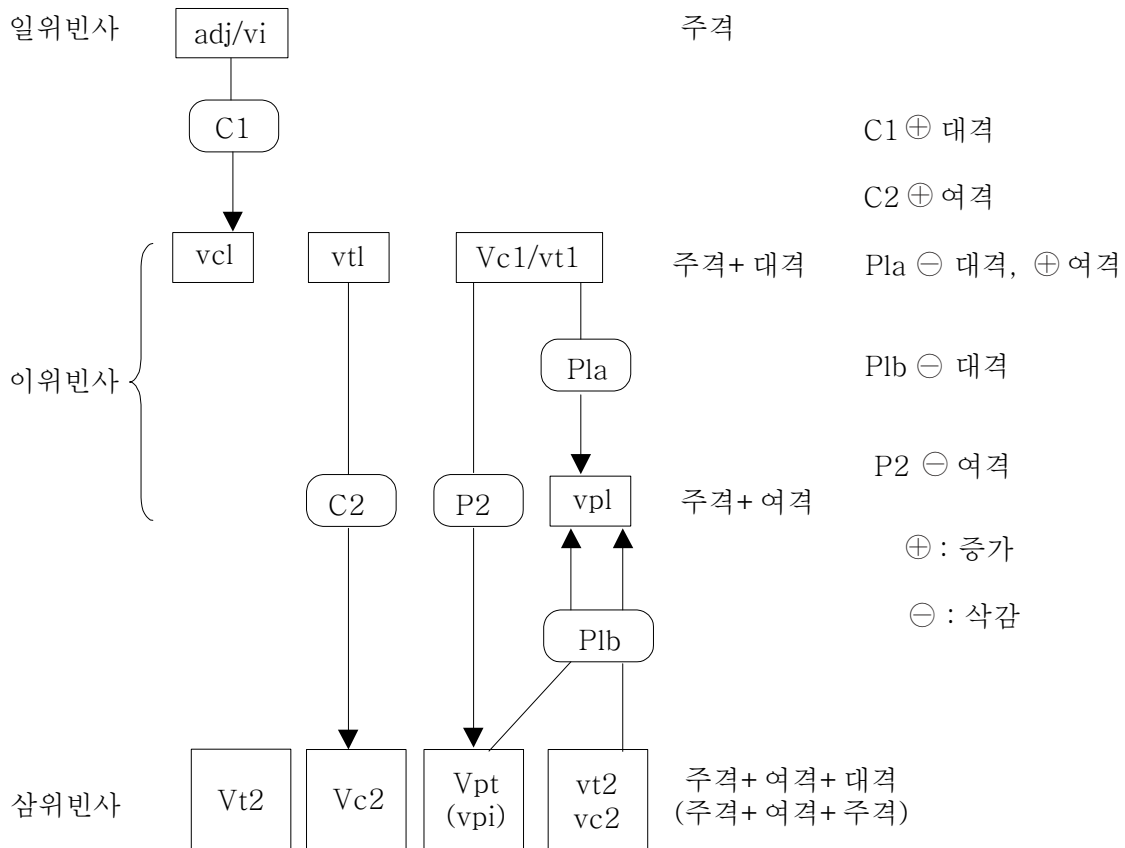
우선 위의 도식에서 술어부분만을 뽑아 그 전개과정 및 상호관계를 추상화하면 다음 편의 도식과 같다.

이 도식의 우단(右端)에 기록한 것은 표면구조상에 나타나는 격표지들을 그대로 지시하는 것일 뿐이다. 가령 위에서 표의 i) A가 vi/adj--(C1)→B가 A를 vc1이란 관계는 ‘주격’ 1항만 있던 술어가 ‘주격|대격’이란 2항 술어 즉 이위빈사로 바뀌는 것을 보인다. 삼위빈사 중의 (vpi)는 우단 괄호 속의 3항대로 실현되는 특례적 경우를 가리킨다.

밑의 +, - 표시는 이 격표지들이 사동화, 피동화됨에 따라 증감되는 관계를 보이려고 한 것이다. (C1) 사동화로부터 (P2) 피동화에 이르기까지 각기 대격이 첨가되는 대격, 또는 대격은 삭제되고 여격(처격 등 여타의 경우까지 대표하는 동작주 표시)이 삽입되는 대격, 여격의 경우들이 있다.

이 표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특수한 경우에 대해 부언해 두고 싶다. 앞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으나, 또 아무도 이제까지 명언한 바가 없지만,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도 피동사로 되는 매우 특례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불다(vi)→불리다(vpi), 날다(vi)→날리다(vpt), 울다(vi)→울리다(vpt), 놀다(vi)→놀리다(vpt), 돌다(vi)→돌리다(vpt) 및 불리다(vi)→다치다(vpt) 등의 예들이다. 이들은 비록 소수의 특례들이지만 자동사는 피동화될 수 없다는 통념을 파괴하게 하는 흥미로운 예임에 틀림없다.

(31)



위와 같은 체계적 연구가 일어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대조 연구가 완성될 것이다.

II. 3. 일본어의 어간형성 접미사 ‘-(ら)れ- (サ행은 -され-)’를 첨가한 피동형

일본어 문법에서 피동(수신)-가능-존경-자발의 조동사는 아래와 같이 만든다.

- (32) 접속: 5단동사. - 어미 うだん > あだん +れる よむ>よまれる
 상-하 1단 동사 - 어미 ~る > ~られる みる>みられる
 力行 변형동사 - くる > こられる
 サ행 변형동사 - する > される

변형: 하 1단 동사변형을 함.

의미: - 당하다. -하여지다. -할 수 있다. -하시다.

한국어와 대조해 볼 때 아주 단순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II.5.절에서 논하겠지만 일어의 피동(수신)-가능-존경-자발의 용법 가운데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피동(수신) 용법 부분인데 형태상으로만 기술한 현단계에서 이것이 다른 세가지 용법의 형태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우선 -させ-가 붙어서 (자동사가 아니라) 순수한 원래 타동사, -れ-가 붙어서 (피동사가 아니라) 순수한 원래 자동사가 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간노 교수의 아래와 같은 조언으로 살펴 본다.

이 문제는 たべさせる (먹이다)란 예를 들어 보면, [A-ni B-o tabesaseru] (A는 사람, B는 물건)는 순수한 사역이지만, 한편 [A-o tabesaseru] (A는 사람)는 [양육하다]란 뜻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 이것을 타동사라고 해도 괜찮은지 의심스럽다. -られ-가 붙음으로서 자동사가 되는 듯한 예는 없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 타동사, 자동사가 아니면 사역형이나, 피동형이지 [가령 だまされる 는 일본어에 있어서는(사역의 뜻을 가진) だます (속이다)의 피동형이지 타동사도 자동사도 아니다.] 한국어처럼 타동사, 자동사와 구별이 애매한 사동사, 피동사란 개념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위의 견해는 “원래 모든 피동사는 자동사이고, 모든 사동사는 타동사이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필자의 생각처럼 다루면 원천적 해결이 된다.]

다음에는 -られ-가 아니라 -れ-만 붙어, 타동사 入れる나 자동사 あられる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역시 간노교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의거 하여 답하였다. 필자가 예로 든 타동사인 入れる(들이다)에 대응하는 자동사는 단순히 いる이겠지만 이것도 지금은 별도로 はいる(들다)란 형태가 흔히 쓰이고 있다. 이 경우 -える가 파생접미사다. 또한 あられる(나타나다)는 현대어에 있어서는 あらわす(나타내다)란 타동사에 대응하는 자동사다. 이 경우에 쓰이는 -れる도 -す도 현대어에 있어서는 파생접미사다.

[여기서 入れる는 차치해 놓더라도, -れ-가 쓰인 あられる(나타나다)는 あらわす(나타내다)란 타동사에 대응하는 자동사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れ-의 분포가 피동형 형성만이 아니라 자동사 형성에도 쓰임이 입증된 것이다. 또 -れる도 -す도 동급으로 간주된다면 사실 -rer-와 -s-를 핵심으로보고 그 뒤에 -u가 둘다에 공히 붙은 것으로 형태소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일본어가 음절문자로 쓰이기 때문에, 일견 -れる와 -すが 서로 관계가 없는듯이 혼동될 수 있는 현실이라 특기하는 것이다.]

II. 4.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피동과 관계되는 동작주의 표현

본절은 필자와 간노, 하세가와, 와다 교수와의 사이에 면담과 통신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많으므로 각각의 의견 개진 앞부분에 H(Hasegawa), K(Kanno), L(Lee), W(Wada) 자를 붙여 두는 방식으로 서술하겠다. 물론

이것이 논문에서의 인용이 아니라 이메일 상의 대화가 많았다는 점을 다시 덧붙여 둔다. 더 심사숙고한 후 아래의 견해가 더욱 충실히 갖춰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우선 1장에 제시했던 표 (6)의 첫 칸이 능동문이므로 그것부터 논하겠다.

1) K “능동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나는 그에게/그에게서 배웠다/ 받았다”, “나는 그에게 맞았다” 따위입니까? 피동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를 포함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역의 뜻을 가진 동사를 포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나는 그를 보냈다 [가게 했다]”

L [[[의미상 각 어사의 내용에 따라 능동문을 설정하기보다, 피-사동문이 도출되는 기저의 원천적 문장으로 능동문을 보고 싶습니다. 뚜렷이 ‘이, 히 등’과 ‘-어지- 등’을 안 쓴 형태는 다 능동이라고 (의미보다) 형태를 우선해서 보아야 작업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니면 ‘의미상 피-사동’이라는 범주로 위 예들을 다루는 방법도 있겠지요.]]]

K 저 역시 voice 적인 표시 없는 것만 능동문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2) K ②의 피동문 “무”가 ○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일본에/일본에게 침략당했다.” 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어에서 “①과 ②는 한 범주로 어차피 통합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예 “-에”와 “-에게”를 현대어에서는 한 형태소로 보기 때문에...

L [[[일어, 한국어, 또는 알타이어들에서도 그렇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K 그렇습니다. 반대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일본에게 침략당했다.” 의 문장에 관해서는 “일본”이란 단어의 유정성/ 무정성이 중화되었다고 보아 ①과 ②는 처음부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L [[[위 예의 “일본에/일본에게”는 한 형태소로 중화된 것이라기보다 “일본에 (의해), 일본(인)에게”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역시 ‘에게’ 앞에는 사람이나 유정물이 온다고 느껴져서 “일본인”이라는 내재 의미가 즉각 드러납니다.]]]

K 제가 보통 한국사람에게 물은 바에 의하면 “-에게 당하다”는 보통 유정물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고 “일본”이란 단어를 마침 의인화시켜서 “-에게”라고 한 것이지 절대로 “일본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보통사람 쪽을 믿습니다.

L [[[제가 말하는 것이 곧 의인화된 국가, 즉 유정물, 궁극적으로는 ‘일본인’으로 통하는 감각이 ‘에게’의 경우에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인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느껴집니다. 이 점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문장에 “X 도요토미에/ ○ 도요토미에게”로 대입해 보면 명확합니다.]]]

K 당연하지요. “도요토미에게/ 도요토미에 대하여(?)”. 또 “-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어만 볼 때는 공식적으로는 “-에게”도 “-한테”도 같은 형태소입니다 (양자는 문체적인 차이밖에 없음). “형태소”란 개념이 통시적인 것이라면 명명을 달리 하면 됩니다. 또한 “-에게/-한테”도 “-에”도 “유정성/무정성”이란 lexico-grammatical category 에 의한 차이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덧붙이면 여기에다가 “-더러”란 것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즉 유정, 문장어, 언어 활동의 상대자). 한국어의 격은 문체에 의한 형태론적인 variant 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L [[[원래 ‘더러, 보고’라는 여격도 ‘에게’와 함께 언급하는 일이 많지만 전자들은 약간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뒤에 예를 보이겠습니다.]]]

3) K “문이 나에게 의해서 열려졌다”는 가능한데, 아마 “문이 나에게 열려졌다”와 “문이 나에게 열렸다”는 불가능함. 그러면 “열어졌다”는? “문이 나에게 의해 열렸다.” 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L [[[원래 ‘에게’는 동작주 표지로는 ‘에 의해’보다 변별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선생님 예문들 중에서 “문이 나에게 열려졌다”와 “문이 나에게 열렸다”는 일차적 reading 이 순수한 여격으로 되지 동작주를 나타내는 의미로는 안 될 겁니다. “등용문이 나에게 열렸다”로 고치면 순수 여격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K “-에게”가 “-에 의해”보다 약하다라기보다는 후자는 문장어적이고 전자 “-에게”는 구두어적이지만, 또한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는 문장 그 자체가 번역조이기 때문에 후자를 사용한다는 것 같은 informant 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L [[[“약하다”는 것은, 즉 이중 기능을 가진 형태소이므로 의미 파악이 뚜렷이 한 쪽으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제 생각으로는 ‘열어졌다’는 1회의 피동, ‘열려졌다’는 2회의 피동 표현이 내포되어 있으나 이중피동도 결과는 1회의 피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보통 한국어 화자로서) 봅니다. 후자는 자연성, 자발성, 인위성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려고도 하지만, 동사를 교체 대입해서 조사해 보면 곧 차이를 혼동하기가 일 수입니다.]]]

4) K

- ㉓ a. 車にひかれる、風に飛ばされる
- b. 彼から嫌なことを言われた
- c. 交通事故によって傷を負わされる

b 는 회화체에서도 쓰이고, c 는 문장체에서 쓰입니다. b 에서는 동작주가 彼이지만 c 에서는 동작주는 交通事故가 아닙니다. 단 交通事故のために로 하면 회화체가 됩니다. 그런데 a 는 회화체에서도 가능하지만 동작주가 각각 車, 風인 능동문인 경우는 문장체가 됩니다.

아무튼 a, b, c 가 다 회화체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주어가 유정물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a 에 대응하는 능동문)에는 거의 번역조 문장뿐입니다.

工藤(Kudoo) [Oosaka 대학] 같은 사람에 의하면 무정물을 주어로 하는 피동문은 영어에서도 드물고 혹시 있어도 거의 문장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 있어서는 회화체에서는 피동문을 일체 안 쓰고, 한국어의 “문이 열렸다” (일본말의 To ga aku.) 따위는 재귀동사를 씁니다. 문체를 구별하지 않는 Voice 론은 일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에 있어서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L [[[저도 선생님처럼 실증적 연구를 좋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적 문장을 만들어 가며 연구하는 현대통사론의 추세로 볼 때, 특히 피동 같은 문제를 실제 현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문장만으로 연구한다는 태도는, 문법성(grammaticality)이나 문장 성립가능성(또는 수용성 acceptability)의 경계가 있는 MARGINAL 한 부분을 밝히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요. Kuno, Shibatani 등의 변형문법적 연구도 그 내용을 다 알고 학문적 비판을 통해 무시를 하려면 해야지, 그들의 본지를 모르고 그냥 멸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5) K 그런데 표 (6)에서 ①에 “동작주” 처격, ②에 “동작주” 여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③, ④, ⑤에는 “동작주”란 말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요?

또한 동작주 처격, 동작주 여격을 가진 능동문이란 도대체 어떤 문장인가요?

L [[[본인의 석사 논문에서는, ③, ④, ⑤에도 “동작주”란 말이 원래 표 위에는 다 <‘동작주’ 표시 방법>이

라고 있습니다. 길고 복잡해지더라도 더 분명히 표시하자면, 표 (6)를 작성할 때 능동문 앞 칸을 넓게 잡아 '동작주'란 말을 전부 붙이고 썼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논문 2.1.9 “동작주 보어”의 주 32에 동작주 조격(instrumentalis actoris)이란 용어를 포페 교수에게서 인용하면서 “이 동작주 조격은 능동, 피동 양 구문 모두에서 동작자(유정물)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고 한 데 근거하여 여-치격도 능동문 동작주로 쓰인다고 당시 판정했습니다.]]

K 이제 “동작주 치격, 동작주 여격을 가진 능동문”이란 어떤 문장인지 짐작이 됩니다. 동작주 치격 능동문: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Waga too de wa koo kettei sita.

동작주 여격 능동문: 나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된다. Watakusi ni wa yoku wakaranai.

L [[[위에서 주제화의 ‘는’과 ‘wa’가 붙어야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을 주목해 둡니다. 덧붙여 능동문에서도 동작주 탈격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것이 좋겠지요. 가령 한국어에서, 동작주 탈격 능동문: 예수에게서 빛이 났다.]]]

6) K ①의 동작주 조격 “-(으)로”의 예문: “별판이 눈으로 덮였다”는 일본말 “Nohara ga yuki ni/de oowareta.” (ni가 de 보다 많은 것 같음)에 대응하지만, 동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 [[[한국어도 “별판이 눈에 덮였다”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연성을 떠나 일반화 시킨다면, 조격 ‘으로’로 쓰이는 slot(칸)도 표와 같이 성립여부가 X ○ X ○ X 로 체크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지요.]]]

K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와 유정물인 경우와, 적어도 일어의 경우는, de 라도 (앞의 명사는 무정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무정물인 경우는 피동문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동작주가 yuki (눈)란 직관적 감각이 없습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모르지요.

L [[[한국어의 경우는 “별판이 눈/피/시체//풀/철재로 덮이다”와 같이 대체가능 어휘로 테스트해 보면, 애초에 “눈”만 단독으로 어감을 느꼈을 때 무정성이 주는 어색한 문제가 꽤 해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유정성 명사(풀/철재)들이 대입 되었을 때나 거의 같은 정도로 ‘눈/피/시체’에서도 피동성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표 (6)의 ㄷ의 경우, 능동문 무정 동작주에 쓰일 일이 있는지에 대해, 능동문 ‘눈/피/시체(으)로 덮다.’가 전제되고 이것에서 피동문 ‘눈/피/시체(으)로 덮히다.’가 또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 K “나는 그를 죽였다” 따위는 한국어에서는 사동문입니까? (일본말도 마찬가지로 사동문임. Watakusi wa kare o sinaseta. “sinaseru”는 “sinu(죽다)”의 사역형. 그런데 “korosu”는 타동사 “to kill”. 이 경우도 격은 같음. “Watakusi wa kare o korosita.”) 그렇다면 표 (6)에서 “korosu” 타동사가 빠졌습니다. 단, “나는 그들에게 먹인다.” (“Watakusi wa karera ni kuwaseru.”)와 “나는 그들을 먹인다.” (“Watakusi wa karera o kuwaseru.”) 참조.

L [[[‘죽이다’는 ‘이’가 있으니 사동형이지요. 그러나 위의 일어에 대한 타동사의 존재에 대한 지적을 표 (6)에 표시해 넣어야 좋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동사 korosu는 사동의 접사 -se-가 없으므로 능동문으로는 표에서 포괄 되지만 다른 칸, 즉 사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의미론적으로는 ‘사동성이 내포된’ 타동사이지만 형태가 보통 사동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K 일어의 “sinaseru”는 사역형이고 “korosu”는 타동사인데 아마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 전자와 같은 -se- 삽입의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모으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의 경우 다음 것도 참조: “Watakusi wa kare o ikaseta.”(나는 그에게 [그를?] 가게 했다 [나는 그를 보냈다])

H(asegawa) [하세가와 교수가] 자세한 내용을 가미해서 ‘동작주 표시 격형태’에 대해 표의 일어 부분만을

다시 정리해 보면 표(34)와 같다 (6)의 표 중 ① 일본어 능동문에서 유정물에 ‘-に’가 붙을 경우 이는 여격(물건이나 행동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밖에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떤 문장을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L [[[이미 간노 교수와의 토론에서 언급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자면, 동작주 여격 능동문: 나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된다. Watakushi ni wa yoku wakaranai., 같은 예가 있고, 이 때 ‘에게’라는 문어투에 대응되는 ‘한테’가 구어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구어투의 여격 ‘더러, 보고’는 동작주 여격으로는 쓰이지 않는 사실이 흥미롭다. cf. 동작주 처격 능동문: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Waga too de wa koo kettei sita. 등도 가능하다. 이 경우 여격-처격 앞에 오는 명사는 ‘단체나 조직, 국가, 당국’ 같은 의미를 가진 부류가 흔히 보인다.]]]

H (6)의 표 중 ①의 능동문 무정 동작주에 -で가 쓰이는 예로 앞서 (8) b에 ‘私はナイフでゆびをきられた’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때 동작주가 ナイフ인지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누가 나이프를 가지고 내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을 피동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리고 ‘ゆび가 성립 안 됨’이라는 데 대해, ‘내가 내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소유자피동이 아니고 손가락 자체를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면 ‘(彼の)指がナイフで切られた(그의 손가락은 칼로 잘렸다)’는 가능하다고 본다.

L [[[와다 교수의 직관과 다른 판단인데, 여러 일어 화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H 앞서 표 (6)에서 ①과 ②, ③과 ④는 표 (34)에서는 통합시켰다.

각 부분별 문제점의 확인을 위해 (34) 표 속의 로마자 소문자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 a. 능동문에서 무정물에 ‘-に’가 붙은 문장이라면 ‘ドアに指をはさんだ’와 같은 문장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 ‘はさんだ’라는 동작의 주체는 손가락 주인인 ‘사람’이 될 것이다.
- b. ‘私のほうでやっておきます(제가 해 두겠습니다)’, ‘この店は子供たちで運営している’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전자는 완곡 표현으로 항상 ‘~のほうで’라는 형태를 취하며, 후자는 대체로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의 단체가 -で에 선행되고 ‘~どうしで(끼리)’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34)

문장의 성격(능, 피, 사동문의 구별)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
선행체언의 성격(유정물과 무정물의 구별)	유	무	유	무	유
-に	X	Xa	○	○	○
-で	○b	Xc	△d	○	X
-から	○e	X	○	○f	○
-により、-によって	Xg	Xh	○	○	Xi
-をして	X	X	X	X	○

- c. b와 비슷한 경우겠지만 ‘雪/血/死体で覆う’와 같이 능동문에서 무정명사가 조격으로 나타난 경우, 역시 ‘누군가가’라는 다른 동작주체가 암시되는 문장으로 간주되겠다.
- d. c와 비슷하게 ‘子供たちで運営されている’와 같은 문장이,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없진 않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 때는 ‘~のほうで’는 쓰이지 않는다.
- e. ‘私からよく言って聞かせました(제가 잘 타일러 놓았습니다)’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지, 한국어에서는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L [[[‘에게서’ 앞에는 유정물만 올 수 있는데, 동작주 탈격 능동문: “예수에게서 광채가 난다.” 같은 예가 가능하겠다.]]]

f. ‘組織から見放された’와 같이 동작주로 간주되는 탈격 무정명사는 사실상 사람들로 구성 되는 단체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다.

g. ‘研究者らによって開発が進んだ’ ‘犯人によって人質が危険なめに遭う’와 같은 문장에서 동작주체는 ‘연구자’와 ‘범인’이 아니고 ‘개발’이나 ‘인질’이라 할 수 있겠다.

h. 마찬가지로 ‘台風によって堤防が決壊した’ ‘交通事故によって車が渋滞する’의 동작주체는 ‘제방’과 ‘차’가 되겠다. L [[[‘에 의해서’가 한국어에서는 문어투에서 유-무정 동작주에 다 쓰이고, 위 g, h의 문장들을 한국어로 대역했을 때의 동작주는 ‘연구자’와 ‘범인’ 그리고 ‘태풍’과 ‘교통사고’로 보이는데, 일본어에서의 직관은 좀 다른 것 같다.]]]

i. -によって/より로 사동문 동작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L [[[“어머니가 아이에 의해(서)에게 스스로 옷을 입게 하였다”는 대표적 문절사동 구문이다.]]]

H e에 대해 선생님이 의견을 말씀하신 데 대한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에게서 광채가 난다’에서 ‘예수’를 동작주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g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개발’이나 ‘태풍’이 동작주체가 된다고 하시고 이것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직감차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직감 차이라기보다 ‘동작주체’라는 용어의 정의 차이라고 봅니다. 앞에 ‘예수에게서 ...’의 예에서도 그러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동작이나 작용의 결과를 초래한 현실적인 ‘힘’ 같은 것을 ‘동작주체’로 정의하신 것으로 보이십니다만, 저는 ‘進んだ’ ‘決壊した’와 같은 자동사문에서는 그 자동사의 주어를 동작주체라고 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자동사의 원천이 피동사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기에 자동사도 피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 ‘힘’을 동작주체라고 하신 것이군요.

그런데 일본어로 볼 때는 あらわれる/あらわす처럼 일부 어원이 피동사였다고 보이는 자동사가 있긴 하지만 현재 일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에 모두 사동형과 수동형이 갖춰져 있는 체계성 때문에, 자동사문에서는 어디까지나 주어가 그 문장의 동작주체로 보여지고 현실적인 그런 결과(상황)를 초래한 ‘힘’은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 [[[하세가와 교수의 정의에 따른 판단인데, 여러 일본 학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와다 교수가 제공한 것으로 별도로 몇 주제에 대한 논의를 삽입해 둔다.

* 와다 교수의 ‘의 생략가능성’에 대한 설명

행동주를 나타내는 には 직접피동문에서는 흔히 생략할 수 있지만, 간접피동문에서는 화용론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 생략할 수 없다.

(35) 田中は(山田に)なぐられた

(36) a. 田中は*(山田に)なかれた。

b. 田中は*(山田に)窓をあけられた。

참고: Miyagawa, Shigeru 1989, p.4

* 행동주 표지에 대해서

행동주 よって와 には 정보기에는 문체론적 차이처럼 보인다.

- (37) a. ジョンがビルによって批判された。
b. ジョンがビルに批判された。

그러나, 간접피동의 행동주는 によって로 나타낼 수 없다.

- (38) *ジョンは子供によって死なれた。

또, 피동문의 주어가 추상적인 대상일 때는 には 쓸 수 없고, によって만이 허용된다.

- (39) 開會が議長によって宣言された。

분포가 다르므로, によって를 가진 피동문과 によって를 가진 피동문은 다른 구조를 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 Kuroda, Shige-Yuki 1979, Inoue, Kazuko 1976.

* 와다 교수 지적: 홍기선(1991)의 예문과 일어의 차이점

영어나 일어와 달리, 한국어 ‘히’ 피동형에서 동작주 표시구는 목적절에서 빈대명사 (empty pronoun)를 제어하지 못한다.

- (40) a. Chelswul-nun swunkyeng2-eykey [PRO1/*2 cosa-lul halyeko] cap-hi-ess-ta.
John1이 순경2에게 [PRO1/*2 조사를 하려고] 잡혔다.
b. Taroo-wa keikan-ni [PRO1/2 cosa-wo surutameni] tsukamae-rare-ta.
Taroo-Top policeman investigation-Acc do-in order-to catchi-Pass-Past.
(한국어의 내용은 Ki-Sun Hong(1991)에서)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일어 피동에서 동작주는 능동의 상응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특질을 보유한다. 한편 한국어 ‘히’ 피동에서 동작주구는 더 이상 주어 같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어의 ‘히’ 피동은 자동사 또는 더 정확히는 목적격(대격)을 받지 않는 자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차이의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해 봐야할 것이다.

II. 5. 한국어의 피동사<자동사-타동사>사동사

II. 5.1. 동사 분류를 위한 임의적 25문례의 제시와 동사 분류

사동.피동구문의 통사론적인 연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전제로서 우리는 현대국어의 기본문례를 정동사형 단문을 중심으로 하여 임의적으로 25개만 뽑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 열거하는 문장의 설정 기준은 차차로 비판·세론해 나가겠지만, 우선 한 문장 속에서 어떤 형태 요소(주로 주격.대격을 갖는 체언 또는 체언형 즉 체언상당 어구와 각종 서술어)가 출현하는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문장구조가 달라진 각 변종들을 빠짐없이 취하되 그 어떤 요소가 통사적 논리상 적어도 그 문장을 완전하게 하는 데 필수적(obligatory)이며 핵심적(nuclear)인 근간성분이 되고 있다고 직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위주로 했다.

- (41) 1. 이것이 꽃이다.

<체언+체언(서술격)>

2a. 형이 등산이 취미다.	< 체언+체언+체언(서술격) >
2b. 형이[의] 취미가 등산이다.	< 체언+체언+체언(서술격) >
3. 꽃이 아름답다.	< 체언+완전형용사 >
4a. 나비가 꽃이 좋다.	< 체언+체언+불완전형용사 >
4b. 꼬끼리가[의] 꼬가 길다.	동 상
4c. 값이 백 원이 싸다.	동 상
4d. 그 분이 내 형님이 아니다.	< 체언+체언+“부정”형용사 >
5. 이것이[과] 저것과[이] 같다.	< 체언+체언+“비교”형용사 >
6. 꽃이 핀다.	< 체언+완전자동사 >
7a. 물이 얼음이[으로] 된다.	< 체언+체언+불완전형용사 >
7b. 그가[의] 가슴이 편다.	동 상
7c. 사람이 다섯이 간다.	동 상
8. 꽃이 바람에 찢긴다.	< 체언+체언+피동(자동)사 >
9. 철수가 학교를[에/로] 간다.	< 체언+체언+제한타동사/유사자동사 >
10. 그가[의] 약점을[이] 잡힌다.	< 체언+체언+“피동”타동사 >
11a. 나비가 꽃을 좋아한다.	< 체언+체언+완전타동사 >
11b. 나비가 춤을 춘다.	< 체언+체언+“동족”타동사 >
12. 사람이 파리를 죽인다.	< 체언+체언+사동(타동)사 >
13. 철수가 영이에게[를] 꽃을 준다.	< 체언+체언+체언+수여타동사 >
14. 어머니가 아이에게[를] 젓을 먹인다.	< 체언+체언+체언+사동(타동)사 >
15. 포수가[의] 팔을[이] 범에게 먹힌다.	< 체언+체언+체언+피동타동사 >
16a. 내가 그이를 친구로[를] 만든다.	< 체언+체언+체언+불완전타동사 >
16b. 내가 그이를[가] 친구라고[로] 여긴다.	< 체언+체언+체언+“지각”타동사 >
16c. 내가 그이를[가] 친구라고 말한다.	< 체언+체언+체언+“화법”타동사 >

여기에 열거한 문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므로 추상화된 문장유형을 보이는 방법으로 적합치 않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작업에서 임의적인 의미요소가 없는 오히려 공허해질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장형으로 제시했다. 다만 일정한 어떤 구체적 어휘로 인해 구문상 의미론적 제약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주의하여 이 대표 문례에서는 배제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덧붙여 우리의 기호적(嗜好的) 문장형의 하나로 위의 주격과 대격 등에 대해 소위 주제격 “는/은”이 대체되는 것이 있는데 주제격 자체로서만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본고에는 이를 개입시키지 않으려 한다.

이 절에서는 ‘-이, 히, 리, 기-’를 가진 형태들이 사전에서 피동사와 자동사 양쪽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든지 그 분포를 규정하기 어려워, 위 문례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근하여 상황을 파악하였다. 우선 체언(NP)을 필요로 하는 수에 따라 하나는 완전자동사(주격), 둘은 불완전자동사(주격과 대격 이외의 것 하나), 또는 완전타동사(주격과 대격), 셋은 불완전타동사(격과 대격 및 기외(其外)의 하나)로 분류한다. 각각 일위, 이위, 삼위빈사라 호칭하여 종전의 술어보다는 더 넓은 부류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42)

	<가능한 문례>				
①	완전 vi				<6>
②		불완전 vi			<7a>
③	(완전 vi)	불완전 vi			<7bc,8>
④	완전 vi	(불완전 vi)	완전 vt		<7bc,9>
⑤	(완전 vi)		완전 vt		<11ab,12>
⑥	(완전 vi)	(불완전 vi)	(완전 vt)	불완전 vt	+ - I) <13,14,16c> ii) <10,15> + - iii) <16bc>
	(A 유형) 일위빈사	(B/C 유형) 이위빈사	(D 유형)	(E/F 유형) 삼위빈사	

<실례>

- ① (절대적으로 6문례에만 쓰이는 것은 없고 대개 7bc 로도 쓰이게 된다)
- ② 되다. (-에) 관하다, 대하다, 의하다; (-과) 맞싸우다, 맞먹다, 맞서다, 절교하다
- ③ 피다, 죽다, 살다, 태어나다, 남다, 모자라다, 자빠지다 갇히다, 걸리다, (피동자동사) 있다(존재), 계시다
- ④ 가다, 오다, 다니다, 걷다, 오르다, 떠나가다, 떠나다, 서다, 기다, 앉다, 건너다, 뛰다, 자라다, 늘다, 줄다, 솟다, 앞드리다, 흐르다, 끊다, 붙다
- ⑤ 좋아하다, 먹다, 마시다, 읽다, 묻다, 삶다, 잡다, 찢다, 말다, 매다, 단다, 타다, 쓰다, 낳다, 훔다, 움직이다, 구경하다, 피하다; 죽이다, 끓이다, 피우다(사동사); 놀다, 쉬다, 추다, 자다, 웃다(모든 동족동사)
- ⑥ i) 주다, 받다, 빼앗다; 먹이다, 깨우다, 말기다(타동사에서 온 사동사); 만들다, 삼다
ii) 먹히다, 찢기다, 잡히다(피동타동사)
iii) 말하다, 부르다, 일컫다; 여기다, 생각하다, 믿다, 배우다, 보다, 듣다, 느끼다, 알다, 확신하다, 가정하다; (-과 -를)맞들다, 맞붙이다, 맞바꾸다, 교대하다, 상쇄하다

위 표로 대략 보였듯이 ①부류에 속할 듯한 ‘피다, 죽다, 살다’ 등이 ‘그 사람이 아들이 죽었다(7b), 사람이 백 명이 죽었다(7c)’에서처럼 7bc 로도 된다. ②부류는 ‘되다’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통사론적으로 ‘되다’처럼 또 하나의 체언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함께 묶었다. 따라서 ‘-에’가 요구되는 것은 8문례, ‘-과’가 요구되는 것(상호적인 자동사)은 형용사문인 5문례와 각각 외형상 일치되지만 불완전자동사로서 공통되는 점을 더 중시해 본 것이다. ③이하는 전술한 것처럼 문례 6(완전자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피동자동사들은 8문례로 될 수 있는 부류임은 이미 숙지된 바이지만 7b, 7c 로도 될 수 있다. ‘꽃이 잎이 찢긴다.’ (7b), ‘꽃이 세 송이가 찢겼다.’ (7c) 반대로 ‘자빠지다’ 등 특수한 것만은 8문례가 형성된다. ‘할머니가 바람에 자빠지셨다.’ (8) 그러므로 이것들은 일반적인 공통점을 인정하여 ③부류로 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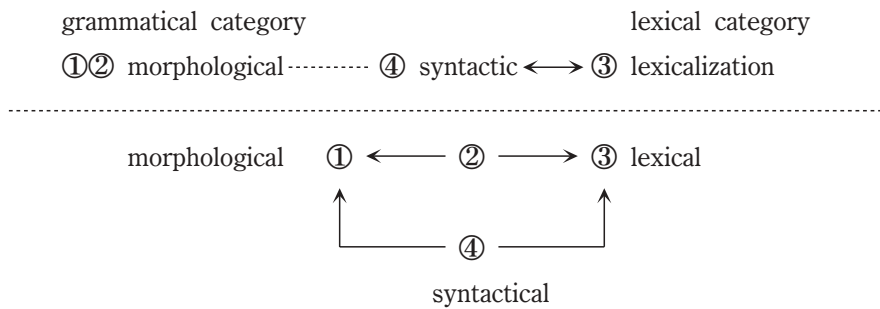
다음 ④부류 이하의 소위 ‘양양동사’(兩樣動詞)(double-sided verb, cf. Jespersen, 1933, §11.8.)라 하여 자동사와 타동사로 겸용되는 것들인데, 통념상 자동사로만 믿어 오던 것들이 ④에서 대폭 완전타동사로도 분류된 점은 기이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9문례 형성가능성에 의해 만일 그런 예가 보이면 그대로 완전타동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류를 하게 된 것이다. 7b, 7c 등의 문례도 가능하여 결국 ④부

류는 일위빈사로 쓰이는 경우가 기호형(嗜好型)일지는 몰라도 이위빈사(불완전자동사와 완전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모두 성립된다. ⑤부류는 ④에 비하여 불완전자동사로는 쓰이기 어려운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는 전술한 형용사나 자동사에서 사동사로 된 타동사들이 포함되며 동족동사들이 모두 포괄될 것이다.

⑥부류는 가장 원형으로는 불완전타동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나 목적어나 기타 성분의 거의 무제한 생략가능성 때문에 일위빈사(완전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종전에 수여타동사라 하던 것도 불완전타동사로 보게 된 것은 그것도 삼위빈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타동사로부터 사동사로 된 것이나 피동사 중에 타동사로 쓰이는 것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기타 ‘지각, 화법’ 동사와 ‘상호적’인 타동사도 이에 귀속한다.

앞으로 연구를 더 확장하여 위와 같은 문례의 정리와 동사 분류를 일어에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편, 다음과 같은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4 방식을 살펴 보면, 일어의 대응 형식이 아주 다르다는 점도 대조될 수 있다.

(43) 피동 표현의 4 방식 (사동 표현도 동일하게 해당됨)



위에서 논한 ①~④유형 가운데 ④유형은 일반적으로 이 4유형 뒤에 다시 가중하여 중첩형을 이룰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뒤의 5장에서 다시 후론하겠지만,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5유형간의 관계를 도식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사동·피동태의 연구업적들이 모두 B, C, D 유형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감이 있는데 앞으로 A, E 유형도 널리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위와 같은 도식은 피동화에 있어 ①에서 피동성이 능동사에 내포된 채로 쓰이는 것(중세국어: 박다, sell 등)이 있고, ②처럼 접미사에 의한 것(몽고어 idegsen: idegdegsen cf. 먹다: 먹히다), ③처럼 별개의 어휘인 것(만들다: 되다), ④처럼 조동사에 의한 것(하다: 하여지다) 등이다.

그러면 다시 사동 및 피동에서의 4부류의 차이를 한눈에 쉽사리 구별할 수 있는 도표를 두 개 더 첨부하기로 한다.

(44)

I	①	②	③	④	
	move	Öldü	die 가다	cuire	<주동>
	움직이다	죽다		오다	<사동>
		Öldürdü	kill 보내다	faire 오게	
		죽이다		cuire 하다	

II	①	②	③	④	
	sell (박다)	Idegsen 먹다	(make) 만들다	move 하다	<능동>
		Idegdegsen 먹히다	(become) 되다	be 하여	<피동>
				moved 지다	

(be sold ④도 가능) (be made ④가 정상)

이 도식들에서 우리는 ①-④형의 방식에 대해 각 언어마다 그 기호형을 달리 가지고 있는 듯한 사실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어, 터키어, 몽고어, 등은 ②부류 일색으로 사동성, 피동성을 표현하는 듯하고1) 국어에서는 ②부류가 상당수 있지만 거기서 누락되는 동사는 주로 ④부류의 방식으로 보충된다. 즉 파생접미사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사동성, 피동성을 우설적(또는 통사론적)으로 표현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다. 물론 ①, ③부류에 속하는 동사도 꽤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 추세를 논단(論斷)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영어도 ①이 꽤 있지만(주로 사동사에) 역시 대부분의 일반적 사동성, 피동성 표현은 ④방식에 의존한다. 한편 불어는 대체로 ④부류의 사동성, 피동성 표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결국 제 언어의 일반적 추세는 ②, ④부류에 기우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동이나 피동이란 문법범주를 다룰 때 과거에 논급하던 대상은 주로 위의 기호형에 그쳤을 뿐 각 언어의 동사체계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①, ③부류 같은 것은 보통 주목하지 않았던 듯하다. 필자는 본고에서는 우선 이 사실을 충분하고도 명확히 지적해 놓고 주로 ②, ④방식의 구명으로 들어감으로써 과거의 연구들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상 ①, ③부류에 대한 실례조사 및 연구는 여기서 장황히 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약간의 예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논해 온 바와 이미 통념적으로 알려진 바의, 사동?피동에 대한 제 표현형식을 묶어 유형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위와 좀 달리, 표현형식의 동이(同異)에 따라 분화와 미분화로 나누고, 분화된 표현형식은 다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론적 분화로 하위분류해 본다.

(45)	미분화	분화			
	동 형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론적
	A	B	C	D	E
<주동>	㉠	죽 다	일 하 다	오 다	가 다

움직이다

<사동>	㉠, ㉡	죽 이 다	일 시키다	오게 하다	보내다
<능동>	㉢	먹 다	주목 하다	하 다	만들다
		움직이다			
<피동>	㉣	먹 히 다	주목 당하다	하여 지다	되 다

- 1: ‘주목(을) 당하다’ 외에 ‘주목(을) 받다, 주목(이) 되다’도 가능.
- 2: ‘오게(를) 하다’ 외에 ‘오게(를) 만들다, 오게(를) 시키다’도 가능, 또한 ‘오게’ 대신에 ‘오게끔, 오도록’도 가능.
- 3: ‘하여지다’ 외에 ‘하게(를) 되다’도 가능, 또한 ‘하게’ 대신에 ‘하게끔, 하도록’도 가능.

1 장의 ㉠부터 ㉣까지의 예문에서 ‘움직이다’란 동사가 영변화(zero modification), 즉 동형으로서 두루 쓰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제3장의 예들과 같이 어간형성 접미사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 사. 피동사의 형태가 분화되어 나온 표현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표의 A 유형을 보면 전기(前記)한 바처럼 ‘움직이다’란 단일형태가 ㉠ 예문에선 소위 주동형으로 ㉢과 ㉡ 등에선 사동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 다시 능동형 ㉢을 기준으로 ㉣ 구문을 보면 피동의 뜻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이한 미분화현상을 보이는 동형의 동사에는,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치다, 내리다, 멈추다, 펄럭이다¹⁾’ 같은 것들이 속할 듯하다.

다음 B 유형 이하는 세로로 <주동-사동, 능동-피동>의 네 경우가 각기 분화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예시했듯이 사동. 피동어간형성 접미사의 첨가에 의해 음운론적으로 분화된²⁾ B 유형은 일어나,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몽고어, 터키어 등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국어에서처럼 제한된 수의 동사에만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다. 국어의 사동.피동 표현형식도 원초적으로 B 유형에서 비롯된 것이나 점차 위축되어 상실해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본래 B 유형이 완전하게 발달되지 못했던 것인 데다가 D 유형의 등장으로 더욱 비생산적으로 된 것인지, 혹은 아예 B 유형이 더 후기적 발달인지는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³⁾

국어에서는 명사에 ‘-하다’ 접미사가 붙는 동사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형태론적 분화라 할 수 있는 C 유형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B 유형의 행동반경과 같은 용법을 보이므로 B에 합류시켜도 좋을 듯하나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명사와 접미사 사이에 대격표지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은 C 유형의 특성이기도 한다.⁴⁾ 예 : 일을 하다, 일을 시키다, 주목을 하다, 주목을 당하다, 주목을 받다.

국어에서 사동. 피동성을 모든 동사표현에 적용하자면 불가피하게 D 유형과 같은 일종의 우설적 표현(迂說的表現 periphrastic expression)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을 통사론적으로 분화된 표현형식이라 부를 수 있겠고, 영.불어 등의 사동.피동표현에서, 또 더 넓게는 시제표현에서 생기는 빈칸까지도 이런 우설적 표현으로 충당하는 일이 많다. 국어가 다른 알타이 제어와는 달리 B 유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형식에 크게 의존해야 사동.피동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D 유형은 현재 변형문법의 한 중심적 논제가 되고 있는 보문화(complementation)와도 관련되며 B 유형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표현형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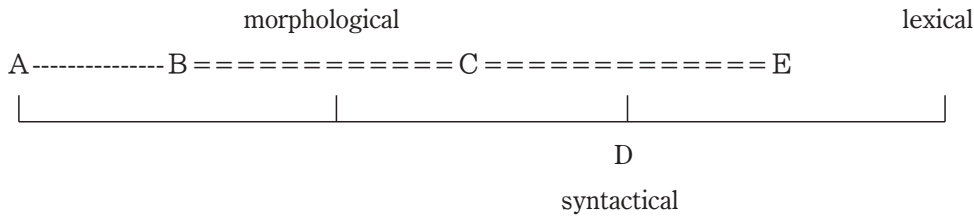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휘론적인 분화(lexicalize)가 된 E 유형을 볼 수 있는데, 가령 영어의 die 와 kill 은 우리말의 ‘죽다 : 죽이다’와 같이 동원적(同源的) 개념의 대칭표현이지만 영어의 어휘로서는 아주 상이한 형태를 취한다.

국어에서 E 유형에 속하는 예가 얼마나 나올지는 A 유형과 함께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상에서 논한 A~E 유형 가운데 D 유형은 일반적으로 이 5유형 뒤에 다시 가중하여 중첩형을 이룰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뒤의 5장에서 다시 후론하겠지만,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5유형간의 관계를 도식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사동?피동태의 연구업적들이 모두 B, C, D 유형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감이 있는데 앞으로 A, E 유형도 널리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46)



II. 5.2. 사동사.피동사를 위주로 본 용언의 분류

- 17형의 분류, 4종의 피동태동사 -

위에서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론적 구조에 중점을 두고 그에 관련한 문제들을 기술해 온 것인데, 원동사와 사동사.피동사와의 상호관계에서 ‘한쪽만’ 존재하는 것과 ‘양쪽 다’ 존재하는 것 및 후자에서는 다시 이형인가 양용(兩用)되는 동형인가로 나누어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 (47) 와 같다. 이 표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많은 사항들을 연관지어 표시하고 있으므로 유기적인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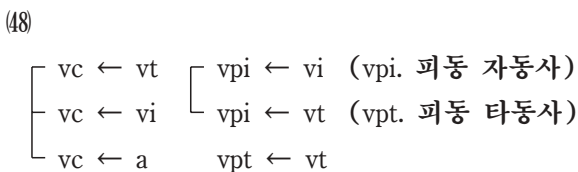
(47)

사, 피동사가 능여부	분류	원 용 언			형태론적 표현형식		통사론적 표현형식		(참고) vp-음을 당한다, a에는 연결 불능
		a	vi	vt	vc (vt)	Vp (vi, vt)	vc -게/도록 하다/만들다	vp -아/어지다 -게 되다	
vc	I	높다			높이다 vc1		a, vi, vt, vc, vp에 모두 연결 가능	원편과 같음 ☑	
	II		죽다		죽이다 vc2				
	III			벗다	벗기다 vc3				
vp	IV			떨다		떨리다 vp1	☑		
同 異	vc/vp	V		안다	안기다 vcp1	안기다			
		VI		비치다	비추다 vc(p)2	비취다 vp2			
명사+하다類	vc	VII	II	일하다		일시키다		☑	
		VIII	III		존경하다	존경받다		☑	
	vp	IX	IV		존경하다		존경받다	☑	
	vc/vp	X	VI		주목하다	주목시키다	주목당하다 (-되다, 받다)		

	(a)	?	I	아름답다 화려하다					☒	☒	/
	(vi)	?	II		오다 담화하다				☒	☒	
	(vt)	XIII	III			묻다 경탄하다			☒	☒	
	vp	XIV	IX, IV		이하다	()		이(익)되다 vp	☒		
同		XV	V		날다	()	날리다 vcp2	날리다			
異	vc/vp	XVI	VI		닿다	()	대다 vc(p)3	다치다 vp3			
		XVII	X, VI		감동하다	()	감동시키다	감동되다			
	vc	III	α			타다	태(우)다 vcp			☒	
	vp	IV	α			빼앗다		빼앗기다 vpt1	☒		
同	vc/vp	V	α			잡다	잡히다 vcpt	잡히다 vcpt			
異		VI	α			먹다	먹이다 vc(pt)2	먹히다 vpt2			

표 (47)에서 보다시피 총 XVII형의 기본적 분류에 다시 네 개의 피동타동사(α 로 표시)가 합쳐져서 도합 21 종류라고 해도 좋을 유형들이 추출된다.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등을 앞서의 ‘형태론적 표현방식’과 ‘통사론적 표현방식’으로 자동사구와 피동사구로 만들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각 변종을 등록시켜 본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통사론적 표현은 어떠한 원용언(原用言) 및 자동사, 피동사 자체에 대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므로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타나게 되어 특징적인 유형의 분류에는 아무런 지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오직 ‘형태론적 표현형식’으로 자동사(vc)나 피동사(vp), 또는 양쪽 다 될 수 있는가를 따져서 XVII유형을 세운 것이다. 그 중 XI, XII, XIII에서는 형태론적 형식으로는 자동사나 피동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통사론적 형식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 표시한 모든 부분은 형태론적 표현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통사론적 표현형식이 전충(填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XIV~XVII 유형들에서는 타동사(vt) 칸에 괄호가 있는 것은 전술해 왔던 바와 같이 피동사는 국어에서 원칙적으로 타동사로부터 전성되는 것으로 생각해 온 사실을 상기시켜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네 유형은 암만해도 자동사로부터 피동사로 전성되는 특례적인 것들로 기록해야만 사실에 부합될 것이다. 다음 III α ~VI α 는 형태분포상 III~VI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으나 α 쪽의 것들은 피동사일 때 타동사로 쓰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피동타동사류는 주로 ‘간접피동’의 구문에 쓰이게 되며 통사론적 사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같이 복잡한 관계를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위에서 자동사로부터 피동자동사가 되는 경우는 ‘불리다, 날리다, 울리다, 놀리다, 들리다’ 등을 들 수 있으

나, 특례로 자동사에서 피동타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다리를 다친다’(vpt. < 달다 vi)

피동타동사의 용례를 통사론적으로 정립하기 전에 우선 그 형태목록을 소개해 둔다.¹⁾ ‘빼앗기다, 베다, 잡히다, 깨다, 채이다, 핥이다, 잘리다, 깎이다, 떨리다, 찢리다, 질리다’ 이상은 비교적 확실한 것만이고 그 밖에도 우리는 허다히 ‘대격목적어를 취하는 피동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명사+하다류’의 동사에 소위 ‘가분(可分)명사 후접(後接)동사’, ‘시키다(사동), 당하다, 받다, 되다(피동)’ 등을 붙여 사.피동사를 만드는 경우들을 논해 보자. ‘하다류’ 중에는 X형이 가장 보편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제외한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예들을 약간 열거하겠다.¹⁾

(49)

- ① 노래, 공부, 각오, 강습, 간섭, 물색, 방관, 복종, 문답, 노력, 비행, 답장한다/시킨다: VIII형
- ② 해(를) 받다. (또는 해(를) 입다): IX형
- ③ 격전, 박수, 담화하다: XII형
- ④ 기(忌), 경탄, 대우하다: XIII형
- ⑤ 이익, 가책, 고조, 마비, 모순, 소득되다: XIV형
- ⑥ 감동, 꺾기시키다/되다: XVII형

위 표에서 형태론적 표현형식에 의한 사동사 및 피동사는 일련기호를 붙여 놓았다. 이것은 후일의 작업을 위하여 임의적인 예로서 임시적인 체계를 잡아 본 것일 뿐이라 해도 각 사.피동사의 위치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명사+‘하다’ 류는 제외).

끝으로 위와 같은 체계를 놓고 우리의 자료를 대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동음이의적(homonymous) 어휘들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50)

형용사 차다(冷)

자동사	차다(滿)		깨다 (酒醒)		지다 (負, 敗)			
타동사		차다(蹴)		깨다 (覺眠)		지다 (負荷)	질다	
사동사	채(우)다	채(우)다	깨(우)다	깨(우)다	지우다	지우다	지우다	
피동사	차이다 (채다)	차이다 (채다)	깨이다	깨이다		지이다	지이다	
	I형	XVI	IV	II	III	II	VI	VI

a 부르다(飽)

vi	분다(潤)			듣다?		달다(走)			
vt		부르다(呼)	분다(注)	불다(吹)	듣다(聞)	들다(擧)	달다(懸)		
vc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들리다	들리다	달리다	달리다

vp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들리다	들리다	달리다	달리다
I	XV		V		V	V	XV	V
a	마르다(乾)		맞다(正)					
vi					맞다(合, 中)			
vt		말다(捲, 止)			맞다(被打, 迎)			
vc	말리다	말리다	맞추다(맞히다)	同左	맞추다(맞히다)			
					cf. 맞추다(注文), 마치다(終)			
vp	말리다							
I	V	I	II	III				

위에서 보인 동사 분류를 참고하여 일어에서의 상황을 대비시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II. 5.3. 형태론적 표현형식과 통사론적 표현형식의 윤곽

두 표현형식을 수궁하여 놓고 이제 그 내용을 상론하려면 우선 그 윤곽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장황함을 피하기 위해 먼저 현대국어에서만 두 형식의 구조체계를 도표화해서 보이겠다.

(5) -일람표-

	원품사	사(A-C)피(D-G)동화 요소	실례
형태론적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용사① 자동사② 타동사③ 	A. 어간형성접미사 (stem-suffix) -이[]], 리(우), 히, [치](우), 기(우), (우), 으리, 으키, 이키, 우, 추[후], 구, 예, 애, 으	①높이다. 키우다. 바꾸다. 기르다 ②앉히(우)다, 솟치[히]다, 솟구다 ③찢기(우)다, 불리(우)다, 다, 태(우)다, 수그리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곧추다, 맞추다, 멈추다, 건네다, 없애다
표현형식	(명사) 자동사④ 하다류 타동사⑤	B. 가분명사후접동사 (separable post-nominal verb) -(을) 시키다	④일(을) 시키다 ⑤주의(를) 시키다
통사론적형식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용사⑥ 자동사⑦ 타동사⑧ 	C. 조동사에 의한 우설적표현 (periphrastic expression) -게(끔) 하다 -도록 만들다 시키다(⑦⑧에만)	⑥곱게하다/만들다 ⑦가게하다/만들다/시키다 ⑧먹게하다/만들다/시키다
형태론적형식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사⑨ 타동사⑩ 	D. 어간형성접미사 -이[]], 리(우), 히(우), 기(우)-	⑨날리(우)다 ⑩떡히(우)다, 안기(우)다, 보이다, 뵈다
	(명사) 자동사⑪ 하다류 타동사⑫	E. 가분명사후접동사 -(을) 당하다 -(이) 되다 받다	⑪감동(이) 되다 ⑫주목(을) 당하다/받다 주목(이) 되다

통사론적 형식	전부 { (형용사)⑬ 자동사⑭ 타동사⑮	F. 조동사에 의한 우설적표현 -아[어]지다 -게(끔) 되다 -도록	⑬좋아지다, 좋게 되다 ⑭죽어지다, 죽게 되다 ⑮먹어지다, 먹게 되다
	전부 { 자동사⑭ 타동사⑮	G. 가분명사후접동사 (동명사화에 의한 형용사배제) -(으)ㄴ을 당하다	*⑬좋음을 당하다 ⑭죽음을 당하다 ⑮먹음을 당하다

II. 5.4. 통사론적 표현형식에 의한 중첩형들

—이중사동, 이중피동 등등—

앞서의 표들을 이용하면서 국어에서의 태 표현형식의 중첩은 어떠한 양상인가 도시하기로 한다. 우선 표1의 각 항에 C, F 두 방식에 의한 통사론적 표현이 중복해서 첨가되는 관계를 보인다.

(52)

	C 에 의한 이중사동화	F 에 의한 사동-피동화
1	높이게 하다/만들다	높이어지다, 높이게 되다
2	앉히게 하다/만들다/시키다	앉히어지다, 앉히게 하다
3	찢히게 하다/만들다/시키다	찢히어지다, 찢히게 되다
4	일시키게 하다/만들다	일 시키어지다, 일 시키게 되다.
5	주의시키게 하다/만들다	주의 시키어지다, 주의 시키게 되다.
6	곱게 하게 (하다)	곱게 하여지다, 곱게하게 되다
7	가게 하게 만들다	가게하여지다, 가게하게 되다
8	떡게 하게 시키다	떡게하여지다, 떡게하게 되다
	F 에 의한 이중피동화	C 에 의한 피동-사동화
9	날리어지다, 날리게 되다	날리게 하다/만들다/시키다
10	먹히어지다, 먹히게 되다	먹히게 하다/만들다/시키다
11	감동되어지다, (감동되게 되다)	감동되게 하다/만들다/시키다
12	주목당하여지다, 주목당하게 되다	주목당하게 하다/만들다/시키다
13	좋아지게 되다, 좋게 되어 지다	좋아지게 하다, 좋게 되게 하다
14	죽어지게 되다, 죽게 되어 지다	죽어지게 만들다, 죽게 되게 만들다
15	먹어지게 되다, 먹게 되어 지다	먹어지게 (시키다), 먹게 되게 (시키다)

(52)의 표는 중첩관계의 일부만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선 실제로 쓰이는 많은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키다’의 분포는 곳에 따라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C에 의한 피동-사동화’에서) 형식상 가능한 위치면 일단 다 붙여 보았다. 여기서 1~3, 9~10은 일상 빈용(頻用)되는 형태이고 그 나머지는 이들보다는 좀 덜 쓰이는 것으로 직감된다.

그러나 중첩형은 표 (52)의 이중적 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C나 F가 반복적(recursive)으로 적용되어 삼중적 또는 상당히 복잡한 사중적 관계까지도 가능한 듯하다. 이것은 C나 F의 본성을 되돌아볼 때 (43), (44)에서 도식으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동-피동 표현방식으로서 이미 태의 표시가 된 형태 위에도 중가(重加)하여 사용될 수 있는 보편형이기 때문이다. 표 (52)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론상 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연결관계의 개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 | |
|----------------------|------------------------|
| (52) <이중사동화> A/B/C+C | <사동-피동화> A/B/C+F |
| <삼중사동화> A/B/C+C+C | <사동-피동-사동화> A/B/C++F+C |
| <이중사동-피동화> A/B/C+C+F | <사동-이중피동화> A/B/C+F+F |
| <이중피동화> D/E/F+F | <피동-사동화> D/E/F+C |
| <삼중피동화> D/E/F+F+F | <피동-사동-피동화> D/E/F+C+F |
| <이중피동-사동화> D/E/F+F+C | <피동-이중사동화> D/E/F+C+C |

이것은 삼중관계까지만 보인 것인바 외견상 이런 구조가 있을까 의구를 갖기도 쉽지만 가령 <사동-피동-사동화>해 봤자 A에서 택해 보면 ‘높여지게 하다’처럼 극히 자연스러운 형태다. 물론 B, C, E, F에서 취해 보면 그리 자연스럽지 못한 형태도 많겠지만 그것은 동일형태소가 중복되는 까닭이며 삼중체계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중피동화 같은 이중형은 일어에서도 ‘사동수신’ 등으로 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대응 형태를 연구하여 대비 시키면 어느 만큼 비슷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Ⅱ. 6. 한국어는 피동이라는 한 기능만 인정하는 데 비해, 일본어는 피동, 가능, 자발, 존경의 4 용법을 설정 대조연구를 위해 일본어 문법 체재를 인용하자면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이는 규범문법을 우선 대본으로 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다음에 인용하는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년간 김옥희 편저 ‘일본어 문법’에서 피동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A) 수신(수동, 피동)

간단히 말해, 남으로부터 동작을 받는다는 뜻이다.

1. 타동사로 만드는 직접수동 -- 원래 목적어를 가진 문장(타동사문)만이 수동문을 만들 수 있다.

(54)

- | | |
|-----------------|-------------------------|
| ○先生が学生をほめる |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한다.) |
| <学生は先生にほめられる |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는다.) |
| ○みんなは金先生を知っている | (모든 선생님은 김 선생님을 알고 있다.) |
| <金先生はみんなに知られている | (선생님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

* 수동문은 대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동작을 받는 경우이며 구체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もらう, 受ける를 사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인 경우에는 もらう를 사용한다. 한국어에는 이런 구별은 없다.

(55) 印象(を)受ける (인상을 받다.) 賃金(を)もらう (임금을 받다.)

* 원래 수동문은 ‘-에게 당하다’ 이기 때문에 ~に가 되지만 직접 접촉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의 수동문에는 ~から, ~に가 다 사용된다. ~から에는 한국어에서 “-에 의해”가 대응되는데 양국어 경우 다문어투에서만 쓰인다.

(55) 学生はせんせいに (=から) ほめられた

2. 타동사로 만드는 소유자의 수동(직접수동)

(56) 先生は私の息子をほめる 私は先生に息子をほめられた

* 사실을 소유자보다, 행위의 대상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

(57)

○時計がこわされた (시계가 부서졌다.)

○隣の銀行で現金が盗まれた (옆의 은행에서 현금이 도둑맞았다)

* 직접수동은 주격이 무엇인가의 피해나 폐를 입었다는 느낌이 많다. 거기에 반 해, ‘私は先生に日記をよんでもらった’의 경우는 ‘읽어 준 일’을 고맙게 생각할 때 쓴다. 여기에 관계가 있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일본어에서는 피격, 피체, 피침 같이 접두사 피(被-)가 앞에 오는 단어가 한국어만큼 많지 않다. 드물지만 피의자, 피고, 피폭 정도가 눈에 띈다.

3. 자동사로 만드는 피해의식의 수동(간접수동)

원칙적으로 타동사만 수동문을 만들어, 자동사화하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문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자동사를 수동으로 만들 때에는 화자가 간접적으로 피해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된다.

(58)

○こどもがさわぐ。 > こどもにさわがれる。

○こどもがなく。 > こどもになかれる。

위의 예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함으로써/웁으로써 피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일본어에서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위의 문장들을 한국어로 억지로 번역하자면 ‘아이들에 의해 시끄러워졌다/ 울려졌다(?)’라는 식으로 아주 어색한 번역이 나온다. 특히 ‘울려졌다(?)’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번역보다는 ‘우는 소리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소음의 피해를 본다)’는 표현을 해야 원 뉴앙스가 전달될 것이다. ‘지다’가 붙는 표현은 대체로 어색한 한국어로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를 만약

위의 간접 피동의 예로 든다 할 경우 (실제로 김옥희 편저 '일본어 문법'에서 쓰인 예)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59) かぜがふく。 > かぜにふかれる。

와다 박사의 조언에 의하면 위의 예는 일본어 간접피동의 예로는 적절치 않다는데, 아마도 한국어에서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원어화자의 어감으로부터 애초에 유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박재섭(인제대) 교수의 조언에 의하면 이런 간접피동의 어법은, 아래의 경우처럼 피동태를 쓰는 대신에 완곡어법(mitigation)으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현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즉 간접피동이나 いただく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일본어 습관의 일환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60) みられる (보여지다) > みていただく (직역:봄을 받다, 의역:보아 주다)

* 타동사가 수동형이 되면 자동사적인 표현과 같아진다.

(61) 橋が流れた。 > 洪水で橋が流された。

* 피해의식을 나타내는 간접수동은 ~て를 동반하는 복문의 뒤 문장에는 자연스럽게 '困る、残念だ' 등의 감정의 표현이 사용된다.

(62) 明日試験なのに、子供たちに来られて困りました。

* 간접수동이 될 수 없는 동사도 있다.

(63) 出来る (할 수 있다), 聞こえる (들리다), 見える (보이다), 売れる (팔리다), ある (있다), 要る (필요하다), 受かる (합격하다), 教わる (가르침을 받다), 見つかる (발견되다) 등이다.

* 수동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사들이 있다.

(64) 受かる (합격되다), 教わる (가르침을 받다), 見つかる (발견되다), 捕まる (잡히다), 変わる (바뀌다), たすかる (구조되다), 預かる (맡다), 借りる (빌리다), 負ける (지다) 등이다.

(65) 試験を受ける > 試験に受かる
(시험을 치다) - (시험에 합격되다.)

4. 타동사로 만드는 피해의식의 수동(간접수동)²

2 와다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간접피동문을 현대언어학적 방식으로 보충 설명하여 주었다:

(1) a. 田中が山田をたたいた。 b. 山田は田中にたたかれた。

간접피동문으로 전환

(2) a. 田中が (*山田に) さわいだ。 b. 山田は田中にさわがれた。
(3) a. 田中が (*山田に) 100点をとった。 b. 山田は田中に100点をとられた。

객관적인 타동사문을 화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표현이 된다. 자동사의 피해수동이든, 타동사의 피해수동이든 주어가 필요없는 문장이 된다.

- (66) 猫が魚を食べた。 > 猫に魚を食べられた。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힘을 당했다)

그 외에도 직접피동문과 간접피동문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1. 피해 해석

간접피동문에 있어서는 주어가 피해를 입는다는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직접피동문에는 피해 해석이 있을 때가 없을 때도 있다.

- (4) a. 田中は息子に昇進された。(피해 있음) b. 田中は息子に100点をとられた。(피해 있음)
(5) a. 田中は先生にほめられた。(피해 없음) b. 田中は先生にたたかれた。(피해 있음)
((5b)의 피해 해석은 たたく란 동사의 의미에서 화용론적으로 나오는 해석일지도 모른다.)

2. 재귀대명사 「自分」(자기)의 해석

自分は 주어를 선행사로 하는데, 직접피동문에서는 自分は 피동문의 주어(patient) 밖에 선행사로 해석할 수 없지만, 간접피동문에서는 주어와 に로 표시되는 행동주(agent)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 (5) 田中 i は山田 j に自分 i*j の部屋でたたかれた。
(6) 田中 i は山田 j に自分 ij の部屋でさわがれた。
참고: McCawley, Noriko Akatsuka 1972, 259-270.

3. 'に'의 생략가능성

행동주를 나타내는 に는 직접피동문에서는 흔히 생략할 수 있지만, 간접피동문에서는 화용론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 생략할 수 없다.

- (7) 田中は (山田に) なぐられた。
(8) a. 田中は*(山田に) なかれた。 b. 田中は*(山田に) 窓をあけられた。
참고: Miyagawa, Shigeru 1989, p.4

다른 현상도 포함하며, 직접피동문과 간접피동문을 따로 다루려는 입장을 Non-Uniform Hypothesis 라고 부르고, 둘 다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Uniform Hypothesis 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직접/간접피동문에 해당하지만, 예외도 있다. 아래에 예문은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해석이 전혀 없는 예로 알려져 있다.

- (9) 私は風にふかれて、気分がよくなった。

다른 예외는 분명히 직접피동문임에도 불구하고, 간접피동문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예들이다.

- (10) a. 山田は田中に*に/の肩をたたいた。
b. 山田は田中に肩をたたかれた。

(10a)에서 に를 선택하면 분명히 비문이고, の를 선택하면 の는 동사의 논항이 아니고 명사구중에 있게 되므로 (10a)와 (10b)가 대응된다고 하기가 어려워져, (10b)를 간접피동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10b) 같은 예문은 직접피동과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 (11) a. 田中は山田に肩をたたかれた。(피해 해석이 없는 해석도 가능하다)
b. 田中 i は山田 j に自分 i*j の部屋で肩をたたかれた。
c. 田中は (山田に) 肩をたたかれた。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90년대쯤에는 많은 학자들이 (10b)와 같은 피동문을 직접피동문으로 재분류한 바가 있다. 특히 Shibatani (1990)는, (10b)와 같은 피동문을 직접피동으로 분류하면, 한국어의 피동문 “나는 발을 밟혔다”와 정합시킬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

참고: Kubo, Miori 1990, ms., Terada, Michiko 1990, Shibatani, Masayoshi 1990, p.327.

- 자동사의 피해의식의 수동이든, 타동사의 피해의식의 수동이든, ‘행위자’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67)

<자동사의 경우>他人の人が一番前の席にすわる。 > 私が一番前の席にすわろうと思っていたのに、他の人にすわられてしまった。

<타동사의 경우>友達が財布を買った。 > (私がその財布を買おうと思っていたのに)、友達に買われてしまった。

- 5. 주격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고 사회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때 행위 의 대상물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 (무감정물의 수동)

(68) オリンピックは4年ごとにおこなわれる (올림픽은 4년마다 행해진다).

- 6.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물건이 선보이거나 할 때 대상물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 (무감정물의 수동).

(69) 記念切手が発売されます (기념우표가 발매됩니다.)

- 7.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행해지는 대상물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 (무감정물의 수동)

(70) この新聞は韓国人によまれている (이 신문은 한국인에게 읽혀진다)

- 8. 역사적 사실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등의 생산물이 생기는 경우의 수동 (무감정물의 수동)

(71) 法隆寺を聖徳太子が建てた > 法隆寺は聖徳太子によって建てられた
(법룡사는 성덕태자에 의해 지어졌다.)

* -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発明する, かく(書道), 建てる, 作る, 発見する’ 등의 단어가 잘 쓰인다.

- 9. 인용문을 포함한 수동

(72) みんなは私をいい人だといった > 私はみなにいい人だといわれた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다.)

* 인용문을 포함한 수동을 만들 수 있는 동사는 ‘言う, 教える, 書く, つたえる, 信じる’ 등이 있다.

10.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에 있는 경우의 수동.

예를 들면, ‘누구에게 무엇을’ 의 문장에서 ‘동작주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 가 ‘동작주로부터 누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진다.’

- (73) 市長から大会の優勝者にメダルを渡す。
市長から大会の優勝者にメダルが渡された。

*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의 문장이기 때문에 渡す, 送る, 与える 등 동사의 경우가 된다.

- (74) 権利は国から与えられるものではなく獲得するものだ。

(참고)

1. 수동문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런 경우가 있다.
a. 복문에 있어서 주어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

- (75)
○みんなに愛されて、彼女は幸せそうだ。
(모두에게 사랑받고, 그녀는 행복한 듯하다.)
○彼に殴られながら、私はくやしい気持ちでならなかった。
(그에게 맞으면서, 나는 분한 기분으로 견딜 수 없었다.)
○年齢を聞かれると、23才と答えることにしている。
(나이를 질문 받으면 23살이라고 대답하기로 하고 있다.)

- b. 불특정의 인물이 동작을 하는 것을 받을 경우.

- (76) 私は見知らぬ人に道を訊かれた。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음을 당했다.)

2. 수동형으로 잘 사용되는 말이 있으며,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들도 있다.

- (77)
○好く > 好かれる (호감을 사다) 嫌う > 嫌われる (미움을 받다)
○恵む > 恵まれる (혜택을 받다) 救う > 救われる (구원되다)
○謳う > 謳われる (칭송받다) 喜ぶ > 喜ばれる (기뻐해 준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들

朝、七時までに来られますか。(아침 7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수동’과 ‘가능’의 표현

(83)

猫に肉を食べられた。(고양이에게 고기를 먹임을 당하다.) 수동

肉が食べられる。(고기를 먹을 수 있다.) 가능

友達に来られてこまりました。(친구에게 음을 당해 곤란했습니다.) 피해수동

何時までにくられますか。(몇 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가능

* 5단 동사의 가능은 ‘-えだ+る’이고, ‘する’의 가능은 ‘できる’다.

(C) 존경 - 모든 동사가 수동의 형태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다.

(84)

先生は今日上京されます。(선생님은 오늘 상경하십니까?)

先生はいつ行かれますか。(선생님은 언제 가십니까?)

‘피해수동’과 ‘존경’과 ‘가능’의 표현

(85)

先生に行かれる。(선생님에게 감을 당하다.) 피해수동

先生が行かれる。(선생님이 가시다.) 존경

一人で行かれる。(혼자서 갈 수 있다.) 가능

(D) 자발 - 기본형과 뜻에는 변함이 없으나 자발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 한다. 와다 교수는 심리동사 처럼 특정한 동사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86)

思う (생각하다) > 思われる (생각되다)

思い出す (생각나다) > 思い出される (생각되다)

案じる (염려하다) > 案じられる (염려되다. 걱정되다)

心配する (걱정하다) > 心配される (걱정되다)

感じる (느끼다) > 感じられる (느껴지다)

悩む (고민하다) > 悩まれる (고민이되다)

偲ぶ (그리워하다) > 偲ばれる (그리워지다)

(E) 사역수동의 조동사

(의미) : 어떤 행위를 ‘하다’와 의미는 같으나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다’와 ‘명령을 받아 할 수 없이 하다’의 의미에 사용된다. 또, 어떤 행위나 사물을 직면하고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감정동사. 사고동사를 사역 수동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피해 의식이 있는 간접피동과 비슷한 면이 있다.

행위를 시키는 사람에게는 조사, ‘-に’를 쓰나 수동이나 사역으로 혼동 해서는 안 된다. 한국어에서도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게 하여지다, -게 하 게 되다’ (이상익 1970, P.178)와 같이 사역수동형이 있다.

(87)

母にいろんなものを食べさせられてすききらいがないんです。

(어머니에 의해서 억지로 여러 가지를 먹어서 좋고 싫음(편식)이 없습니다.)

学生たちに歌わされり、飲まされたりして大変だったんです。

(학생들에 의해서 억지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해서 힘들었다.)

彼にはがっかりさせられた。(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했다.)

教育現場で働いていたら真の教育のありがたみをしみじみ感じさせられた。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참교육의 모습을 절실히 느꼈다.)

熱心に勉強する姿に、つくづく感心させられました。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절실히 감탄했습니다.)

ゴルフ場の建設で、自然が破壊されていく現場を見て、つくづく考えさせられました。

(골프장의 건설로, 자연이 파괴되어가는 현장을 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다’의 표현 3가지

1. 사역동사 - 싫은 데도 한다, 본의 아니게 한다.
2. ‘-あだん+せて -させて’+もらう(いただく) -공식적인 겸양 표현
3. ‘お+ます형+する’ 겸양표현이나 2보다는 일상 회화에 많이 쓰인다.

<참고>

‘수동’과 ‘사역’과 ‘사역수동’의 차이

1. 타동사일 경우

(88)

○신문이 읽혀지다 (무감정물의 수동)

この新聞は韓国人にひろく読まれている。

(이 신문은 한국 사람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다.)

: 한국사람이 신문을 읽는다.)

○편지를 읽힘을 당하다. (소유자수동)

私は母に恋人からの手紙を読まれてこまりました。

(저는 연인에게서 온 편지를 어머니에게 읽힘을 당하여 곤란했습니다.)

: 엄마가 편지를 읽는다.

○신문을 읽게 하다 (사역)

できるだけ子供たちには新聞を読ませるようにしている。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는 신문을 읽게 하도록 하고 있다.)

: 애들에게 읽게 시킨다.

○신문을 싫은 데도 읽는다 (사역수동)

子供たちは親たちに新聞を読まされて、大きくなってはいろいろ役に立つものだ。⁴

(애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억지로 신문을 읽어서, 커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다.)

: 애들이 신문을 읽는다.

2. 자동사일 경우

(89)

妹に泣かれた。(동생이 울어서 곤란했다): 동생이 울었다 (피해수동)

妹に(=を)泣かせた。(동생을 울게 했다.): 동생을 울렸다 (사역)

妹に泣かされた。(동생 때문에 울었다): 내가 울었다 (사역수동)

결론

위 총론과 본론에서 언급한 한일어 피동 표현의 대조 부분을 다시 아래에 분명히 정리하여 결론을 삼겠다.

1) [pp.3-4] 일반적으로 양 언어의 동사형 확대에 존재하는 규칙적 대응 機制(mechanism)가 2 언어 사이에 비스듬히 어긋난 경우도 드물게 발견된다. 우선 ‘속다, 씹다’의 2예가 찾아졌다.

a. 속다

속임을 당하다 だまされる

속이다 だます

b. 씹다 vt

かむ [본 예는 와다 교수 제보]

씹히다 vi — [일본어에는 피동형이 없음]

씹기 쉽다 vt かみやすい [피동 대신 쓰이는 표현]

씹을 수 있다 vi かめる (가능)

2) [pp. 6-7] 일본어의 경우는 처격 “에”와 여격 “에게”가 둘다 にと 통용되기 때문에 한 범주로 어차피 통합된다. 그리고 にと 와 での 한일어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A. (처격)

a. 내가 칼에 손가락이/을 잘랐다. vp

b. *わたしはナイフにゆびをきられた. vp [일어에서 성립되지 않아 한국어와 다름.]

c. *내가 칼에 손가락을 잘랐다. vt

d. *わたしはナイフにゆびをきった. Vt

4 하세가와 교수는 이 문장의 후반부분이 웬지 어색한데 어떻게 고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大きくなってからいろいろ役にたつことだろう.’

B. (조격)

- a. 내가 칼로 손가락이/을 잘랐다. vp
- b. わたしはナイフでゆびをきられた. vp [한국어와 달리 ゆび는 성립 안 됨.]
- c. 내가 칼로 손가락을 잘랐다. vt
- d. わたしはナイフでゆびをきった. vt

덧붙여, から가 니와 거의 같게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 せんせいから/にし から られた, せんせいから/に ほめ られた, あいつ から/に な ぐ られた

한국어에서 ‘한테’는 구어체에만 쓰이는 반면, ‘-에 의하여’류는 문어체의 느낌이 있어 회화 중에는 안 나타난다. 일본어에서도 によって, によ리는 다분히 문어적 스타일이고 をして도 문어체 냄새가 나서 일상회화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에 의하여’류는 양용(兩用) 즉 어느 경우나 다 쓰이는 데 비해, ‘-에 인하여’류는 능동, 피동사문 즉 비사동사문에만 쓰인다. によって/によ리는 능동문 피동문 모두, 무정 동작주에 쓰일 수 있다. 즉 事故 によ つて 傷 を 負 わ さ れ る 등이 이에 해당된다. ‘-로 인하여’, ‘-로 말미암아’에 대응되는 일본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들은 모두 ‘によ つて/によ り’로 번역된다. 일본어에서는 ‘-에’와 ‘-에게’의 구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 의하여’류와 ‘-에 인하여’류의 구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쓰이는 한자가 다르기는 하다. 즉 依자와 因자를 쓴다. 따라서 구별이 없다가보다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3) [p. 10] 현대국어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단형 피동을 쓰는 쪽보다 어휘 피동으로 쓰려는 경향이 관측된다. 이런 추세라면 고대 이전의 어느 시기에는 태라는 문법범주가 굴절 기제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어간형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켜 표현하였었다가 점차 비생산적이 되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굴절 범주도 뇌리에 남아 있는 현실 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첨가시키는 분포만은 그냥 파생으로 처리해야 하겠음 축소된 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아직 굴절의 성격을 지닌 채 파생의 분포를 보인다는 말이다. 즉 한 현상이 두 범주에 걸친듯이 현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는 과도적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일본어의 ‘-(ら)れ-(サ행은 -され-)’ 삽입은 처음부터 굴절 범주로 시작되어 계속 현재까지, 형태상으로는 한국어에 비해 아주 단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4) [p. 14] 일어에서는 먹인다 (사동 たべ さ す, たべ さ せ る) 먹힌다 (피동 たべ ら れ る) 뜯긴다 (사동 き り と ら せ る, 피동 き り と ら れ る)가 각각 형태를 달리 하여 ‘구조적 애매성’의 현상은 결코 일으키지 않는다.

5) [P. 31] 한국어에서와 같은 문례의 정리와 동사 분류를 참고하여 일어에서의 상황을 대비시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4 방식을 살펴 보면, 일어의 대응 형식이 아주 다르다는 점도 대조될 수 있다.

6) [P. 42] 이중피동화 같은 이중형은 일어에서도 ‘사동수신’ 등으로 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대응 형태를 연구하여 대비 시키면 어느 만큼 비슷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7) [P. 44] 일본어에서는 ‘피격, 피체, 피침’ 같이 접두사 피(被)-가 앞에 오는 단어가 한국어만큼 많지 않다. 드물지만 ‘피의자, 피고, 피폭’ 정도가 눈에 띈다.

- 8) [P. 44-45]
 - こ ど も が さ わ ぐ. > こ ど も に さ わ が れ る.

○こどもがなく。 > こどもになかれる。

위의 예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함으로써/움으로써 피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일본어에서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위의 문장들을 한국어로 억지로 번역하자면 ‘아이들에 의해 시끄러워졌다/ 울려졌다(?)’라는 식으로 아주 어색한 번역이 나온다. 특히 ‘울려졌다(?)’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번역보다는 ‘우는 소리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소음의 피해를 본다)’는 표현을 해야 원 뉴앙스가 전달될 것이다. ‘-지다’가 붙는 표현은 대체로 어색한 한국어로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를 만약 위의 간접 피동의 예로 든다 할 경우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かぜがふく。 > かぜにふかれる。

위의 예는 일본어 간접피동의 예로는 적절치 않다는데, 아마도 한국어에서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원어화자의 어감으로부터 애초에 유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간접피동의 어법은 피동태를 쓰는 대신에 완곡어법(mitigation)으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현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즉 간접피동이나 いただく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일본어 습관의 일환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P. 50] 간접피동은 한국어에서는 일본어만큼 안 쓰이는 것 같으며, 더욱이 다음에 나오는 가능, 존경, 자발의 범주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 52] 한국어에서도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게 되어지다’ 와 같이 사역수동형이 있다.

이상 열거한 내용들은 다분히 산발적인 발견이고, 더 체계적 완벽한 탐구를 위하여서는 한국어 피동표현에 대한 본인의 과거 연구를 본 논문에 충분히 삽입해 놓은 바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일본어 피동표현에 대한 대응 연구를 앞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옥희 편저 (2003) 일본어 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기동 (1975) Lexical causative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1, 17-24.
- 이기문 (1972) 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 이상억 (1970) 국어의 사동·피동구문 연구, *국어연구* 26호 (1999, 집문당).
- 이상억 (1972) 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어학연구* 8-2, 44-59.
- 이상억 (2000) Ueber die funktionlle Belastung der syntaktischen Phaenomena: Eine quantitative Untersuchung des modernen Koreanischen (통사적 현상의 기능 부담량: 현대 한국어의 계량적 삼차원언어학), *Linguistik jenseits des Strukturalismus Akten des II. Ost-West-Kolloquiums*, Berlin 1998 동서 언어학 콜러퀴엄 발표 논문집 2, 451-464, Gunter Narr Verlag, (실제 2002-08 발행).
- 최창욱 (1999) 現代朝鮮語におけるヴォイス接尾辭をり得る動詞について, 神田外大 碩士논문.
- 최현배 (196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Bloomfield, Leonard (1933) *Language*, Holt, Reinhart and Winston, London.
- Chomsky, Noam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and 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 Transformational Grammar*, 181-221. Ginn, Waltham, Massachusetts.
- Hong, Ki-Sun (1991) The Passive Construction and Case in Korean, *BLS* 17, 130-14
- Inoue, Kazuko (1976) 變形文法と日本語、大修館書店、東京.
- Jespersen, Ott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 Kim, Young-Seok (1984) Aspect of Korean Morphology, Univ. of Texas dissertation.
- Kubo, Miori (1990) Japanese Passives, ms. MIT.
- Kuroda, Shige-Yuki (1979) "On Japanese Passives," in Bedell, Kobayashi & Muraki, eds., *Explorations in Linguistics: Papers in Honor of Kazuko Inoue*, Kenkyusha, Tokyo, reprinted in Kuroda, Shige-Yuki (1992) *Japanese Syntax and Semantics*, Kluwer.
- Martin, Samuel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Baltimore.
- McCawley, Noriko Akatsuka (1972) "On the Treatment of Japanese Passives," *CLS* 8, 259-270.
- Miyagawa, Shigeru (1989) *Structure and Case Marking in Japanese: Syntax and Semantics* 22. Academic Press, New York.
- Shibatani, Masayoshi (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281-297.
- Shibatani, Masayoshi (197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 A conspectus," M. Shibatani, ed., *Syntax and Semantics* 6, 1-40. Academic Press, New York.
- Shibatani, Masayoshi (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ada, Michiko (1990) Incorporation and Argument Structure in Japane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Yang, In-Seok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0, 83-117.